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 FORMATION OF A CHURCH COMMUNITY UNITED WITH A LOCAL
COMMUNITY: THE CASE OF VISION VILLAGE IN CHANGWON,
KYUNGSANGNAMDO, KOREA**

지역사회와 하나되는 교회 공동체 실현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창원시 비전 빌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ang Cheul Cho (조 항 철)

Lynchburg, Virginia

December 2016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Sungtaek Kim
Director, Korean Ministries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THE FORMATION OF A CHURCH COMMUNITY UNITED WITH A LOCAL COMMUNITY: THE CASE OF VISION VILLAGE IN CHANGWON, KYUNGSANGNAMDO, KOREA

Hang Cheul Cho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project is to build a platform for a united community of church and local residents. In the community, the church expands its boundaries so as to become embedded in the local resident community.

Nowadays, Korean churches have lost the public character and the ability to fulfill their social roles and functions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the churches have low reputation and influence in society, and they face the crisis of reductions in the number of churches and its members. For the sake of overcoming these problems of Korean churches, the thesis studies biblical ecclesiology and summarizes the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that Korean churches are facing. A biblical and practical solution will be offered based on these studies.

In order to provide a practical solution, the writer compiled geographical, historical, and social data on two villages, Dorae and Hyundo, located in Oesan-ro, Buk-myoun, Uichang-gu, Changwon-si, Kyongsangnam-do, Korea, and administered a survey to collect data on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The practical solution, called *Vision Village*, will be summarized based on this research. *Vision Village* is being built as a united, local Christian community, in Kyongsangnam-do, Korea and will be presented as a solution to the Korean churches.

Abstract length: 204 words

ABSTRACT

초록

THE FORMATION OF A CHURCH COMMUNITY UNITED WITH A LOCAL COMMUNITY: THE CASE OF VISION VILLAGE IN CHANGWON, KYUNGSANGNAMDO, KOREA

지역사회와 하나되는 교회 공동체 실현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창원시 비전 빌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Hang Cheul Cho (조항철)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연구는 지역 교회가 단순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 주민과 하나되는 지역연합 기독교 공동체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platform)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은 공공성을 잃어가며, 공동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사회적 평판과 영향력이 낮아지고, 급기야 교회와 교인의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성경적인 교회론을 연구하고, 이어 한국교회가 직면한 내, 외부적 문제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로 부근 2개 마을(도래, 현도마을)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자료들을 연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비전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현실적 대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연합 기독교 공동체로서 “비전 빌리지”를 대한민국 경상남도지역에 실제로 만들어 가며,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초록 길이: 144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우선,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시작하고, 마무리 할 때 까지 부족한 제자를 인내하며 지도해 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김성택 교수님, 예리한 조언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정태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고, 수정하던 2016년은 비전 빌리지의 첫 건축과 지역 협동조합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비전 빌리지의 실현이 구체화되고, 현실로 다가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낮에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과 새벽에는 논문을 쓰던 고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통해서 비전 빌리지의 이론적, 신학적 기틀을 정리하고, 건축과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서 현실에서 구체적인 실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견디며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배려와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양가의 부모님, 바쁜 아빠를 이해해 주었던 은하와 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지지하며 함께 해주는 아내 희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비전 빌리지의 비전에 공감하여 주시고,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과 비전 빌리지의 시작에 직접 참여한 분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그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한데 모여 비전 빌리지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 영안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전 빌리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
감사의 글	
TABLES	xiii
표	
GRAPHS.....	xvi
그래프	
FIGURES.....	xvii
그림	
SUMMARY	xvi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장: 서론	
1. Need and Purposes of the Study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Need for the Study	3
연구의 필요성	
2) Purposes of the Study.....	3
연구의 목적	
2. Methodology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3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1) Methodology of the Study	3
연구의 방법	
2) Limitations of the Study.....	4
연구의 제한점	
3. Review of Literature	5
문헌 검토	

CHAPTER 2: Biblical Study on Ecclesiology and Challenges Facing Korean Churches	9
제 2장: 교회론의 성경적 연구 및 한국 교회가 직면한 도전	
1. Ecclesiology of the Gospels in the New Testament.....	9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교회론	
1) Ecclesiology in Book of Matthew.....	9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교회론	
2) Ecclesiology in the Book of John	11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교회론	
2. Ecclesiology of Pauline Epistles in the New Testament.....	13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론	
1) The Term, Church(ἐκκλησία), in Pauline Epistles.....	13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	
2) Figures of Church in Pauline Epistles.....	15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에 관한 비유	
3) Functions of Church in Pauline Epistles.....	17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의 기능	
3. Social Services and Gospel Sharing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20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사회봉사와 복음전도	
4. Essence and Mission of the Church based on Ecclesiology in the New Testament	24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론을 바탕으로 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	
5. Challenges Facing Korean Churches	25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1) Internal Challenges of the Churches.....	26
교회 내부의 문제	
2) External Challenges of the Churches	28
교회 외부의 문제	
3) Problems with Pastors.....	29
목회자의 문제	
4) Problems with Christians	31
성도의 문제	
CHAPTER 3: Study on the Changwon-Si Region	34
제 3장: 지역 연구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의 도래, 현도 마을을 중심으로)	

1. Geographical Study.....	34
지리적 연구	
2. Historical Study	37
역사적 연구	
3. Social Study	39
사회적 연구	
1) Demographics	39
인구 현황	
2) Area Dimension	39
면적 현황	
3) Local Products	40
특산품 현황	
4) Symbol of Changwon City.....	40
창원시의 상징	
5) Religious Demographics.....	41
종교인 현황	
6) Status of Local Self-Government Council.....	43
지방자치 의회 현황	
CHAPTER 4: Survey and Results of Local Residents	45
제 4장: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Overview of Survey	45
설문조사 개요	
2. Results of Survey	46
설문조사 결과	
1) Ages of Responders	46
응답자의 연령	
2) Genders of Responders	47
응답자의 성별	
3) Families living with Responders.....	48
응답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4) Lengths of Residency of Responders.....	50
응답자의 거주 기간	

5) Main Income Sources of Responders	52
응답자의 주된 수입원	
6) Total Annual Income of Responders.....	57
응답자의 연간 총 수입	
7) Annual Income in Case of Agriculture as the Main Income Source.....	61
주된 수입원이 농업일 경우 연간 수입	
8) The Most Difficult Item in Relation to Agriculture for Responders.....	64
응답자가 농업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워하는 일	
9) Desired Retirement Age from Agriculture for Responders.....	68
응답자가 농업에서 은퇴하기 원하는 나이	
10) The Most Difficult Point Felt by Responders	70
응답자가 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11) Religions of Responders	71
응답자의 종교	
12) Responders' Intention to Join Cooperative Union	73
응답자의 협동조합 가입 의사	
13) Responders' Favorability toward Churches	78
응답자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	
14) Responders' Favorability toward Christians	79
응답자의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	
15) Responders' Intention to Attend Church.....	81
응답자의 교회 출석 의사	
CHAPTER 5: Survey Analyses and Proposal for Local Community, Vision Village	83
제 5장: 설문 분석과 지역 공동체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 제안	
1. Analyses of Survey	83
설문조사 분석	
1) Ages	83
연령대	
2) Gender Ratio	83
성 비율	
3) Relations of Residents.....	84
동거인	

4) Lengths of Residency.....	84
거주기간	
5) Income Source	85
주 수입원	
6) Annual Income.....	85
연간 수입	
7) Annual Income from Agriculture.....	86
농업 연간 수입	
8) Difficult Item in Relation to Agriculture.....	86
농업에서 어려운 분야	
9) Retirement Age	87
은퇴 나이	
10) Difficulty of Residents	87
주민들의 어려움	
11) Religion.....	88
종교	
12) Intention to Join Cooperative Union.....	88
협동조합 가입의사	
13) Favorability toward Churches.....	89
교회 호감도	
14) Favorability toward Christians	89
기독교인 호감도	
15) Status of Church Attendance.....	90
교회 출석 여부	
2. Word of Proposal	91
제언	
3. Proposal of Vision Village	91
비전 빌리지 제안	
1) Vision of Vision Village.....	92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의 비전	
2) Purpose of Vision Village	92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의 목적	

3) Realization of Vision Village	93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의 실현	
CHAPTER 6: Conclusion	104
제 6장: 결론	
Appendix A	107
부록 A	
Bibliography	112
참고자료	
IRB Approval	117
IRB 승인	

TABLES
표

<표 1>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종교 인구 비율.....	1
<표 2>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평가.....	2
<표 3> 성직자의 품위와 자격	2
<표 4> 3대 종교인구의 변화	25
<표 5>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매우 많다 + 어느정도 있다	26
<표 6>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인구 현황.....	39
<표 7>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면적 현황.....	39
<표 8> 면적 대비.....	40
<표 9> 2005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종교인 현황.....	43
<표 10> 설문지 질문 1번	46
<표 11> 응답자의 연령대	46
<표 12> 설문지 질문 2번	47
<표 13> 응답자의 성별	47
<표 14> 설문지 질문 3번	48
<표 15> 응답자 동거인의 연령대	48
<표 16> 응답자와 동거인의 관계	49
<표 17> 응답자 나이와 동거인의 관계 교차 분석표.....	50
<표 18> 설문지 질문 4번	50
<표 19>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 기간	51
<표 20> 설문지 질문 5번	52

<표 21> 주된 수입원	52
<표 22> 수입원 기타	54
<표 23> 나이별 기타 수입 교차 분석표	55
<표 24> 거주기간별 주된 수입 교차 분석표	56
<표 25> 설문지 질문 6번	57
<표 26> 연간 총 수입	57
<표 27>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수입	58
<표 28> 연령대별 주요 수입원 교차 분석표	59
<표 29> 연령대별 연간 수입 교차 분석표(단위 : 만 원)	60
<표 30> 설문지 질문 7번	61
<표 31> 주된 작물명	61
<표 32> 주된 작물의 연간 수입	62
<표 33> 부 수입 작물의 종류	63
<표 34> 부 수입 작물의 연간 수입	63
<표 35> 설문지 질문 8번	64
<표 36> 농업과 관련한 주된 어려움	65
<표 37> 연간 수입별 농업 난제 교차 분석표	65
<표 38> 판매가 어려운 이유	67
<표 39> 농업 난제별 성별 교차 분석표	67
<표 40> 연령대별 농업에서 어려움 교차 분석표	68
<표 41> 설문지 질문 9번	68
<표 42> 농업 은퇴 희망 연령	69

<표 43> 성별에 따른 원하는 농업 종사 나이 교차 분석표.....	69
<표 44> 연간 수입 금액별 농업 은퇴 희망 나이 교차 분석표.....	70
<표 45> 설문지 질문 10번	70
<표 46>거주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71
<표 47> 설문지 질문 11번	71
<표 48> 응답자의 종교 현황.....	72
<표 49> 설문지 질문 12번	73
<표 50> 협동조합 동참 의견.....	73
<표 51> 조합 가입 의사 “예”이유	74
<표 52> 조합 가입 의사 “아니오” 이유.....	75
<표 53> 연령대별 협동조합 가입의사 교차 분석표	75
<표 54> 거주 기간별 협동조합 가입의사 교차 분석표	76
<표 55> 연간 수입별 협동조합 가입의사 교차 분석표	76
<표 56> 주된 수입원별 조합 참여의사 교차 분석표.....	77
<표 57> 설문지 질문 13번	78
<표 58> 교회에 대한 호감도.....	78
<표 59> 나이대별 교회에 대한 호감도 교차 분석표.....	79
<표 60> 설문지 질문 14번	79
<표 61>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	80
<표 62> 나이별 교인들에 대한 호감도 교차 분석표.....	80
<표 63> 설문지 질문 15번	81
<표 64> 교회 출석 의사	81
<표 65>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유	82

GRAPHS

그래프

<그래프 1> 3대 종교 인구 비율의 변화(단위 %)	25
<그래프 2> 개신교인의 본인 출석 교회에 대한 정직성 평가	30
<그래프 3> 목회자 정직성 평가(단위 %)	32
<그래프 4>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83
<그래프 5> 주민들의 성 비율	84
<그래프 6> 동거인 관계	84
<그래프 7> 거주 기간	85
<그래프 8> 주된 수입원	85
<그래프 9> 주민들의 연간 수입	86
<그래프 10> 농업으로 인한 연간 수입	86
<그래프 11> 농업에서 어려운 분야	87
<그래프 12> 농업에서 은퇴하기 원하는 나이	87
<그래프 13> 주민들의 어려움	88
<그래프 14> 주민들의 종교	88
<그래프 15> 협동조합 가입 의사	89
<그래프 16> 교회에 대한 호감도	89
<그래프 17> 교인들에 대한 호감도	90
<그래프 18> 교회 출석 여부	90

FIGURES
그림

<그림 1> 대한민국 창원시의 위치.....	34
<그림 2> 대한민국 창원시 의창구의 위치".....	35
<그림 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행정지도.....	36
<그림 4> 창원시의 상징.....	41
<그림 5> 창원시의 캐릭터 “피우미”.....	41
<그림 6> 2005년 한국 종교 지도.....	42
<그림 7> 연구자의 집에서 개척한 비전 교회의 간판을 만드는 모습.....	94
<그림 8> 비전 아카데미 전원 홈스테이 학사관 1층 건축 설계 도면.....	97
<그림 9> 비전 아카데미 전원 홈스테이 학사관 2층 건축 설계 도면.....	98
<그림 10> 비전 교회 건축 설계 도면.....	101
<그림 11> 비전 교회 건축 진행 모습.....	102
<그림 12> 비전 빌라 건축 진행 모습.....	103

SUMMARY

CHAPER 1

INTRODUCTION

According t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hich is published every five years by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Korean church members peaked at 8,760,336 in 1995 but decreased to 8,616,438 in 2005, which is a reduction of 1.7%, or 143,898 people. This decline is a serious issue as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ncreased from 44,553,710 to 47,041,434 a 5.6% increase in the same period, and the number of people practicing any type of religion increased from 22,597,824 to 24,970,766 or a 9.5% increase, during the same period.

The survey results from Korean Gallup on the religions in Korea show the decline in Korean churches' influence and in people's confidence in pastors' qualifications. Korean Churches are in a crisis. Research papers and seminars are pouring out to suggest solutions to overcome this crisis. This thesis is also born out of the agony on the crisis.

In such situations, it is vital to study ecclesiology in order to find out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identity of the church. Furthermore, Korean churches need to discover the missing elements or the weak points that may surface from the biblical research.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that Korean churches are facing will be explored. The writer introduces Vision Village, which is a local church community embedded and united in the life of the local community in Changwon, Korea. Investig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region of Vision Village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tudy.

CHAPTER 2

BIBLICAL STUDY ON ECCLESIOLOGY AND CHALLENGES FACING KOREAN CHURCHES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Matt 16:18).” Jesus blessed Peter in Matthew 16:17, hearing his confession, and built the church. The word “church” used in Matthew 16:18 is the Greek word “ἐκκλησία”, which means “community” as well as “gathering.”

The word church (ἐκκλησία) is not used in the Gospel of John. It is possible, however, to construct an ecclesiology from the Gospel of John based on the Parables of the Good Shepherd in John 10:1-18 and the Vine and the Branches in John 15:1-16.

The Parable of the Good Shepherd presents the community of Jesus ha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shepherd and his sheep, the shepherd being Jesus and the sheep being the sai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epherd and his sheep in Israel shows the figurative relationship of the ruler and his people, drawn from an ancient idea. In the church, Jesus Christ is the head, and the saints are the followers of Christ.

The Parable of the Vine and the Branches in the Gospel of John figuratively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The branches cannot produce good fruit apart from the vine. Furthermore, the parable illustrates the intimate, loving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believers.

Paul’s writings describe two types of churches (ἐκκλησία): the local church and the universal church. All Christians are united as one in the universal church. The New Testament presents the church through several figures and relationships between Jesus Christ and

Christians: the head and the body, the bridegroom and the bride, and the cornerstone and the building.

In the church, there are activities that characterize the special community of Jesus Christ, such as worship, evangelism, fellowship, serving, helping, and education, all of which have a goal of love (1 Tim 1:5). The community receive instruction from the Bible, which is profitable for teaching, reproof, correction,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One of the roles of the church is to contribute to the kingdom of God manifested on the earth. In this sense, it is critical for local churches to assume social responsibilities in their locality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Obeying the commandment of Jesus Christ also includes healing those in need.

Korean churches are facing heavy challenges in many areas. Christian leaders are accused of lacking integrity and qualifications, churches are secularizing, churches are fighting to achieve numerical growth rather than spiritual growth, churches are not responding adequately to rapid social change, Christians have identity crises, the prosperity gospel and materialism have infiltrated churches, and Christians do not want to leave their comfort zones. Thus, churches are struggling to overcome the challenges and to transform themselves to become more like what Jesus Christ wants them to be.

CHAPTER 3

STUDY ON THE CHANGWON-SI REGION

The research of the local region is limited to Dorae and Hyundo villages in Oesan-ro, Buk-myoun, Uichang-gu, Changwon-si, Kyongsangnam-do, Korea.

Changwon was established as a mechanical industrial base in 1973, and the city of Changwon was established in 1980. Changwon-gun was dismantled and reintegrated into Masan-si and Changwon-si on January 1, 1995. Changwon-si is the capital city of Kyongsangnam-do, located in the middle-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part of the mechanical industrial complex within the wide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belt, which includes the Ulsan, Busan, and Sacheon. The city plays a central role for the industrial economy in that area. Uichang-gu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angwon-si, and it was established on July 1, 2010 when the newly expanded Changwon-si was formed by combining the three cities of Masan-si, Jinhae-si, and Changwon-si. Changwon-si consists of five gu: Masanhappo-gu, MasanHoiwon-gu, Seongsan-gu, Uichang-gu, and Jinhae-gu. Buk-myoun Oesan-ri, the village used in this research, belongs to Uichang-gu. Buk-myoun (Buk means ‘north’ in Korean) was named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hangwon-si.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51,664,244 as of 2016. The population of Changwon-si is 1,067,439, or 2.1% of Korea’s total population. Uichang-gu has a population of 253,841 (0.5%); Buk-myoun, 29,121 (0.056%); and Dorae and Hyundo villages 55 (0.0001%).

The total area of Korea’s land is 100,295.4 km², and of that, Changwon-si covers 747.6

km² (0.75%); Uichang-gu, 211.2 km² (0.21%); and Buk-myeon, 73.6 km² (0.073%).

Buk-myeon's representative local product is sweet persimmon. Buk-myeon began to cultivate it in the 1970s. The total cultivation area is now 950 hectare and its production amount is 14,064 tons.

Changwon-si's logo is a vane with three human shaped wings, which comes from the first letter of city name, 'C.' It expresses the hope of Changwon to become a core city that will bring new hope to Korea. The mascot of Changwon-si, 'Peewoomi,' was created by converting cherry blossoms, the official city flower, into an image of a child, and it means "Blossom the new flower of hope for Changwon."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o practice any kind of religion in the three cities, Changwon, Masan, and Jinhae, in 2005 was 577,326, or 53.7% of Korea's total population of 1,075,326. Of that, Protestants only made up 87,983 people, or 8.3%. The data showed that Buddhism had the strong influence in the Changwon-si area compared with other administrative areas in Korea.

The Combined City Council of Changwon-si, created by combining old Changwon, Masan, and Jinhae, started its First Council in July 1, 2010. The Second City Council, which was started from July 1, 2014, consists of a total of 43 members, including 38 members elected from 17 districts and 5 members elected according to the percentage of party votes.

CHAPTER 4

SURVEY AND RESULTS OF LOCAL RESIDENTS

The survey administered to the local residents who live in Dorae and Hyundo village of Buk-myoun, Uichang-gu, Changwon-si, Kyongsangnam-do, was completed in 14 days from June 2 to June 15, 2016. The villages consist of 31 families with a total of 52 people. 34 people, or 65.4% of the population, responded to the survey. SPSS 12.0.0.1 Korean version was used for data analysis. A Frequency Analysis and a Cross Analysis were done for each survey item for the analysis.

The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50-79 year olds was 76.5% (26 people), and the percentage of response from 20-40 year olds was 20.5% (7 people). The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women was 55.9% (19 people), and the percentage of responses from men was 44.1% (15 people). There was 11.8% more responses from women than from men.

The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n the same residence with the responders are mostly ages of 50-70 (17 people, i.e. 50%). Of them, those indicated that they are residing with their spouses are 19 people (55.9%). On the other hand, 14 people (41.2%) live alone. The survey showed that 85.3% of the participants (29 people) lived in the village for more than 26 years.

The main source of income of the residents in the study came from agriculture (61.8%, 21 people), followed by government subsidies like basic old-age pension, etc. (20.6%, 7 people). Other sources of income that are not the main source is ‘Jikbulkeum.’

In terms of annual income, 29.4% (10 people) of the residents earn less than 10M-won

(about \$9,000). This means that many of them survive on less than 1M-won (~\$900) per month. The income from sweet persimmons makes up about 50% of the agricultural income. The average annual income from sweet persimmons is 2M-won (about \$18,000, 14.7%).

12 people (35.3%) expressed that the most difficult challenge in the business of agriculture for the responders was sales. In the case of residents involved in agriculture, 26.5% (9 people) wanted to stay involved in agriculture up to the age of 70. The economic challenge was the most difficult aspect, according to 61.8% of the participants in the survey (21 people).

On religion, atheism was the highest at 35.3% (12 people), Buddhism came next at 32.4% (11 people), and Christianity was lowest at 8.8% (3 people). A total of 58.8% of participants (20 people) answered that they would join a cooperative union if it could solve the problems of the region. As to the participants' favorability toward churches, most responded that they were neutral (55.9%, 19 people), which could mean they do not know about church.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55.8%, 20 people) responded that they were neutral on their favorability toward Christians. Concerning the participants' intention to attend church, most responded, "I don't know" (35.3%, 12 people) and "I don't want to" (32.5%, 11 people).

CHAPTER 5

SURVEY ANALYSES AND PROPOSAL FOR LOCAL COMMUNITY, VISION VILLAGE

The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for the Dorae and Hyundo villages, the location of the writer's ministries, show the following demographic information. People with ages of 50-79 make up 76.5% of the population, and there are 11.8% more women than men. A little more than half of the villagers live with their spouses, and about 85.3% of the people have lived there for more than 26 years. The villages are losing young people.

Their main income source is agriculture (61.8%) followed by government assistance (20.6%). The income level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verage urban workers. While sweet persimmons are the main agricultural item, they are not sold as well as the villagers would like them to be. They continue to work until the ages of 70-75, feeling the pinch of a low economy.

In terms of religion, atheists make up 35.3% of the population, Buddhism makes up 32.4%, and Christianity makes up 8.8%. The percentage of Christians is lower than the percentage of Christians in Korea as a whole, which is 18.3%. Most participants (55.8%) were neutral in their favorability toward Christians, and it seems that they have not given much thought to Christianity.

Considering the challenges of people's ages and agricultural sales, local church pastors may assist with their economic activities, obeying the will of God who cares for all people. The pastors in the locality may also connect with the established urban churches to help with the practical issues of the villagers. In turn, these churches could form partnerships with the rural churches and help the rural communities in need.

In order to realize the dream of Vision Village, the writer actually moved to the village in Buk-myoun, Uichang-gu, Changwon-si, Kyoungsangnam-do to live among the residents for two years. The writer then purchased 1,147m² of the land in Buk-myoun to found ‘Vision Village’ and started to build the first building.

The purpose of Vision Village is to fulfill God’s vision: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through Vision Church by evangelism and missions, to nurture the children of God with education through Vision School, to preserve the nature that God has given by cultivating the land through Vision Farm, and to serve the people of God by sharing their lives through Vision Villa.

Vision Church is a collection of small and diverse forms of churches that do not focus on quantitative growth, which has become a major focus of Korean churches. It has different forms of family churches, cooperative union churches, and countryside churches. The membership of each church is less than 30, so the pastor can minister to the church members more closely and lead them in their spiritual growth. The pastors live very closely with their church members.

The purpose of Vision Academy is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of faithful Christians who hold biblical values and live for God’s glory. Homestay and churchstay will be employed to assist the students at Vision Academy.

The villas in Vision Village welcome retirees who have moved from the city as well as those who need social welfare facilities. Vision Farm serves the purpose of helping retirees settle down and adapt to the local life. The second type of villa functions as a resting facility for missionaries and a shelter for single mothers, runaway teens, and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HAPTER 6

CONCLUSION

According to the biblical study on the church, the church or church community consists of people who confess Jesus as the Christ and have a close and loving relationship with Christ. The church as one body, the bride of Christ, and the building built on the cornerstone carries out the mission, sharing and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through worship, evangelism, fellowship, volunteering, and education. The church as a local body of believers should provide practical help to neighbors.

The thesis project started with the idea on how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es and to recover the true roles of the church. The study presents a solution to the crisis through Vision Village, which consists of Vision Family Church, Vision Farm, Vision Academy, and Vision Villa. Youngan Baptist Church in Busan and Myounggok Church in Changwon support and cooperate with Vision Family Church. For Vision Farm, a cooperative union will be established to preserve the nature that God wants human to care for and to produce safe agricultural products. Buildings are being constructed for Vision Academy and Vision Villa.

Vision Village welcomes co-laborers, churche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that share the vision and that are willing to pull the energy and resources for Christ. For example, a hospital in Masan decided to become a cooperating hospital by providing medical services free of charge to those who work in the related ministries of Vision Village. While experiencing exciting developments, Vision Village will continue to serve the local community by being embedded and united with it to show the love of Jesus Christ poured out on the cross and to bring glory to God.

제 1장

서론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은 누구나 동의하는 화두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료와 세미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쇠퇴하고 있다. 과연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국 교회의 현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에서 5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이고,¹ 또 하나는 한국 갤럽²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의 종교’ 자료이다.³ 통계청의 자료는 한국교회의 양적인 부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한국 갤럽의 자료는 한국교회의 실태와 영향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겠다.

<표 1>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종교 인구 비율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총 인구(명)	40,419,652	43,410,899	44,553,710	46,136,101	47,041,434	48,580,293
종교 인구(명)	17,203,296	·	22,597,824	·	24,970,766	·
개신교인(명)	6,489,282	·	8,760,336	·	8,616,438	·
총 인구 대비 종교인 비율(%)	42.6	·	50.7	·	53.1	·
총 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	16.1	·	19.7	·	18.3	·
종교 인구 대비 개신교인 비율(%)	37.7	·	38.8	·	34.5	·

1) 국가 통계 포털 홈페이지, “인구 주택 총 조사” [온라인 자료], http://kosis.kr/customStatis/customStatis_02List.jsp, 2016년 05월 01일 접속.

2) 한국갤럽, “회사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gallup.co.kr/>, 2016년 05월 01일 접속.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법인형태 조사 전문 회사이며,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회사이다.

3)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2015).

통계청의 자료⁴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1995년 8,760,336명을 정점으로, 2005년에는 8,616,438명으로 143,898명이 줄어 약 1.7%가 감소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인구가 44,553,710명에서 47,041,434명으로 약 5.6% 증가한 것과, 전체 종교인 수가 22,597,824명에서 24,970,766명으로 9.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교회의 교인 수 감소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 갤럽의 통계표다.

<표 2>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평가⁵

◎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1984 년	1989 년	1997 년	2004 년	2014 년
개신교인	84%	81%	64%	55%	59%

<표 3> 성직자의 품위와 자격⁶

◎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매우 많다 + 어느정도 있다’					
	1984 년	1989 년	1997 년	2004 년	2014 년
개신교인	64%	71%	72%	83%	85%

위의<표 2> 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성직자의 품위나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회는 사회적인

4)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 통계-인구, 가구-인구 총조사-인구부문-전수부문-성/연령/종교별 인구”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016년 05월 01일 접속. 통계청의 홈페이지에는 1925년부터 인구 총 조사에 대한 자료가 5년 주기로 수록되어 있으며, 종교인구에 대한 통계는 1985년부터 10년 주기로 수록되어 있다.

5)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91.

6) Ibid., 96.

영향력과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기는커녕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의 결과로 볼 때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위기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거나 ‘그러려니.....’ 하는 타성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는 왜 생겼을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다운 모습(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론을 연구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또는 본질)을 찾고, 그 모습(또는 본질)에서 현재 한국교회에 없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모습(또는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데 꼭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론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본 연구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현장연구 및 대안 연구를 병행하여, 현대 한국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자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론을 연구, 정리하여 교회의 모습(또는 본질)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내, 외부적 문제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실제적 적용을 위해, 본 연구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로 부근2개 마을(도래, 현도마을) 자료들을 연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돕기 위한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비전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현실적 대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연합 기독교 공동체로서 “비전 빌리지”를 대한민국 경상남도 지역에 실제로 만들어 가며,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한국교회의 위기와 원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함에 있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제시한 문제들로 한정한다.⁷

둘째, 본 연구에서 문헌 연구를 제외한 현장 연구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의 2개 마을(도래, 현도마을)’로 한정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 조사한 설문 대상자는 위의 ‘2)’에서 제시한 지역의 실 거주자로 한정한다.

넷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한글번역성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1998년에 발행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표준으로 한다.⁸

3. 문헌 검토

한국의 교회는 근·현대를 거치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다. 이는 전세계의 기독교가 주목할

7)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서울:도서출판 URD, 2013), 438-457. 서문에서 발췌: 이 책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한국 걸립>에 의뢰해 지난 1998년과 2004년에 발표한 ‘크리스천의 교회활동과 신앙생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주)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에 관한 총체적 분석 보고서이다.

8)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대한성서공회 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bskorea.or.kr>, 2016년 05월 01일 접속. “대한성서공회 소개”에서 발췌: 1947년 8월 19일에 설립된 기독교(개신교측) 비영리 법인으로 1961년에 “개역한글판”을, 1998년에 “개역개정판”을 번역 출간하였으며, 이 번역 성경을 한국의 주요 기독교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신자의 양적인 증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직면한 도전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자료들이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15개 교단⁹이 속해있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향후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여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¹⁰ 그래서 2013년에 우리나라 7대 광역시에서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유효표본), 만 18세 이상 비기독교인 1,0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일대일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전화조사를 통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140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인의 종교 현황, 신앙의식, 기독교인의 교회생활, 한국교회 위상 및 평가, 일반적 생활의식 평가 등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2014년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판하게 된 것이다.¹¹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견하는 책 중에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책은 최윤식이 2015년에 저술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이다.¹² 최윤식이 2013년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를 저술하면서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미래학자의 통찰력으로 잘 보여주었다.¹³ 그리고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9)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홈페이지, “임원조직도” [온라인자료], <http://www.kpastor.org/>, 2016년 05월 01일 접속.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소속 15개 교단: 대한성공회 사제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기독교한국루터회(이상 한목협 소속 15개 교단 목협설립순)

10)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홈페이지, “한목협소개” [온라인자료], <http://www.kpastor.org/사역개요>, 2016년 05월 01일 접속. “한목협 소개”에서 발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분열된 한국교회의 일치(Unity)와 갱신(Renewal), 사회와 국가에 대한 한국교회의 섬김(Diakonia)을 다한다.”는 사명에 뜻을 같이한 감리교회, 나사렛교회, 루터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15개교단 목회자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모여 1998년 11월 26일 사랑의교회에서 창립한 협의체이다.

11)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서울:도서출판 URD, 2013).

12)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생명의말씀사, 2015).

13)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생명의말씀사, 2013).

2」에서는 앞으로의 10년을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시대적 소명을 이룰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¹⁴ 그럼으로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사회를 읽고, 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교회의 사역을 확장하는데 큰 동력을 제공했으나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초고령화된 연령층이 위기를 가중시키게 될텐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좋은 대처방안을 제시해주고 있기에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교회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 교회의 본질을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케빈 길레스가 저술한 「신약성경의 교회론」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경적인 기반을 제공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교회론을 연구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¹⁵ 케빈 길레스는 이 책에서 교회와 관련되어 신약성경 곳곳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을 폭넓게 연구하여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등으로 나누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현대 교회들이 속해있는 교파에 대한 연구까지 정리하여 교회론에 대한 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교회론에 대한 책들이 각각의 교단, 교회, 신학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교회론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케빈 길레스는 자신의 책에서 여러 신학자들의 교회론을 망라하고, 특정 교단등에 치우치지 않는 복음주의적이고 균형있는 교회론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기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¹⁶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가 되었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각성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다.¹⁸ 찰스

14)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9.

15) 케빈 길레스, 홍성희 역, 「신약성경의 교회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7).

16) ‘안 나가’를 거꾸로 쓴 단어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뜻.

17) 신성남, 「어쩔까나 한국교회」,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4), 22.

18) 찰스 스윈들, 유정희 역, 「교회의 각성」 (서울: 두란노서원, 2012).

스윈들은 이 책에서 교회를 향해, 안주하려는 유혹과 인기의식, 성장주의와 껍데기뿐인 예배를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기 위해 어떠한 고난에도 당당히 맞서고,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며, 양적인 성장보다 참된 헌신을 강조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들은 길을 잃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영적인 침체는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서는 꼭 필요한 책이다.

현대 교회의 여러 위기들이 지적되어 많은 이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에디 김스의 「넥스트 처치」이다.¹⁹ 시대와 문화가 쉼새 없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불변의 복음을 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변한다. 교회의 건물, 행정, 행사 등이 사회의 경제, 문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모습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하면 안되는 것이 있고, 변해도 되는(어떤 관점에서는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변하면 안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형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넥스트 처치」는 변화하는 세대의 교회를 위해 9가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교회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제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저서들 이외에 교회론에 있어서는 김동수의 「요한복음의 교회론」,²⁰ 한국 조직신학회의 「교회론」,²¹ 한국신약학회의 「신약성서의 교회론」²² 등을 참조하여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

19) 에디 김스, 임신희 역, 「넥스트 처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20)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1)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2) 한국신약학회, 「신약성서의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회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들과 해결 방안 등을 정리 할 때는 닐 콜 · 필 헬퍼의 「교회 트랜스퓨전」,²³ 마크 부캐년의 「당신의 교회, 너무 안전하다」,²⁴ 이원규의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²⁵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의 「한국인의 종교」,²⁶ 등을 참조할 것이다

23) 닐 콜 · 필 헬퍼, 안정임 역, 「교회 트랜스퓨전」 (서울: 스텝스톤, 2014).

24) 마크 부캐년, 안세광 역, 「당신의 교회, 너무 안전하다」 (서울: 요단출판사, 2014).

25)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26)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2015).

제 2장

교회론의 성경적 연구 및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는 수많은 이유로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졌다. 그로 인해 개신교회의 교회론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신교회의 다양성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한스 쾅의 “교회의 본질이 존재하되 그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 가능한 역사적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단과 교회의 다양성은 모두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²⁷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을 연구함에 있어 현대 교회의 기능적 모습을 관찰, 연구하기 보다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론을 정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회론을 정리함에 있어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나타난 교회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교회론

1)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교회론

(1)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16장 18절에서였다. 마태복음 16장 17절(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이어지는 18절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 하셨다. 여기서 베드로(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교회를

27) 한스 쾅,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4), 17.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인데, 이 단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인 동시에²⁹, ‘모임’을 의미하며³⁰, 사도행전 19장 32절과 40절에서는 ‘군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³¹.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는 전치사 ἐκ(-로부터, 밖으로, 밖에)와 동사인 καλέω(부르다, 불러내다)의 합성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³².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는 조직에 기초한 제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2)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복음서에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만 나타난다. 16장 18절의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신앙고백에 기초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것이라면, 18장 17절에서의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역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³³.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의 교회(ἐκκλησία)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한 재판과 권징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ἐκκλησία)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28) 이상근, 「마태복음 주석」 (서울: 예장 총회 교육부, 1970), 255-6.

29) 도날드 헤그너, 채천석 역, 「Word Biblical Commentary 마태복음 33 하」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761.

30) 케리 윌스, 김창락 역,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서울: 돌출새김, 2007), 261.

31) 케리 윌스, 권혁 역,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돌출새김, 2007), 137.

32)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14 마태복음 마가복음」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0), 443.

33) 케빈 길레스, 홍성희 역, 「신약성경의 교회론」 93.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지역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2)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교회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한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적 사고에 의해 쓰여진 복음서로 여겨지기도 하였다.³⁴

요한복음에는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는 교회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³⁵ 하지만 10장 1-8절까지의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와 해설, 그리고 15장 1-16절까지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해설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교회론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1) 요한복음 10장 1-18절

목자와 양의 비유의 초점은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과, 양으로 비유되는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비유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배자와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은유로 고대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³⁶ 요한복음 10장 1-18절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다:

34) 한국 컴퓨터 선교회 홈페이지, “영지주의(gnosticism)란 무엇인가?” [온라인 자료], <http://kcm.co.kr/bible/new/new001.html#new06>, 2016년 05월 01일 접속. 2세기에 흥왕 하였던 이원론적 이단설로서, 철학적지식이 구원에 있어 절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신이 일련의 유출을 이루는데 하급 신 가운데 하나인 구약의 하나님이 물질적 우주를 창조함으로써 고등의 최고 신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최고 신은 악한 물질 세상과 연관을 가질 수 없는 분으로서, 신약의 하나님이 곧 그 신이다.

35) 레이몬드 브라운, 최홍진 역, 「요한 공동체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15.

36)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63.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성경에서는 지배자와 그 백성의 관계(창 48:15, 49:24, 시 23:, 28:9, 74:1, 77:20, 호 4:16, 마 10:6, 막 6:34, 눅 12:32, 벰전 2:25)로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적용했고, 그 결과 양 무리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³⁷

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와 그 뒤를 따르는 양의 관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엡 1:22, 5:23, 골 1:18),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무리인 교회(성도)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비유라 할 수 있다(마 16:16, 막 8:29, 요 11:27).

(2) 요한복음 15장 1-17절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³⁸ 왜냐 하면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7) Ibid., 63.

38) 케네스 갱글, 정현 역, 「Maim Idea로 푸는 요한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414-8.

하는 이것이니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은 ‘거하다(μὲνωέν)’라는 문구로 설명할 수 있다. ‘거하다(μὲνωέν)’라는 단어는 15장 1-16절에 열번이나 나온다. ‘거하다(μὲνωέν)’라는 문구는 인간을 주어로 해서 쓰이면 예수께 대한 충성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주어로 하여 쓰이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벌이는 신적인 행위가 영원히 정당함”을 지칭한다.³⁹

그런데 이 “거하다(μὲνωέν)”라는 문구는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이 ‘거함’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9, 10, 12, 17절)이고, 친구 관계(13, 14, 15절)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신자(교회)의 관계 역시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론

신약성경의 여러 책들 중 바울에 의해 쓰여진 편지들을 바울서신이라 부르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씩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바울서신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테전서, 디모테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의 13개 책으로 한정한다.⁴⁰

1)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

‘교회(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114번 나오는데, 바울서신에는 이 중 46번이 나온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가정 공동체, 혹은

39)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69.

40) 부루스 윌킨슨, 케네스 보아, 정인홍, 콕철호 역, 「한눈에 보는 성경」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698.

여러 가정 공동체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⁴¹ 그런데 이 단어를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유수한 학자들이 정반대의 결론들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⁴²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 단어가 신학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15장 9절(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등을 근거로 교회(ἐκκλησία)란 범세계적 공동체를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³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맞다고 말하기보다는, 바울은 ‘교회(ἐκκλησία)’를 ‘지역 교회’와 ‘범세계적인 교회’ 두 가지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⁴

바울이 사용한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는 하나의 장소에 모인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단수로도, 복수로도 사용이 가능했다.⁴⁵ 왜냐 하면 바울은 가정 교회를 지칭하는 “교회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면서도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절(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과 고린도후서 1장 1절(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테는 고린도에 있는

41)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볼프강 슈테게만, 손성현, 김관임 역,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416.

42) 케빈 길레스, 홍성희 역, 「신약성경의 교회론」 174.

43) Ibid., 175.

44) Ibid., 183.

45) 한국신약학회, 「신약성서의 교회론」 20.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에서 “하나님의 교회”⁴⁶라는 단수 형태로 전체 교회를 통합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에서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지역 교회와 보편적 교회와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은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에 관한 비유

(1) 몸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중의 하나는 “몸”이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몸의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됨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과, 에베소서 2장 16절(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인종, 신분, 죄의 경중을 떠나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23절(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과 골로새서 1장 18절(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을 보면 사람의 신체에서 머리가 몸의 근원이 되고, 으뜸이 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근원과 으뜸이 되신다. 이러한 몸의 비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공동으로 속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46) 바울은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종종 ‘하나님의 교회(고전 1:2, 10:32, 11:22, 12:28, 15:9, 고후 1:1, 갈 1:13, 살전 2:14, 딤후전 3:5, 3:15)’라고 사용하고 있다.

47) 한국신약학회, 「신약성서의 교회론」 21.

안에서 그들 각자가 서로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⁴⁸

(2) 신부

에베소서 5장 22-32절 말씀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23절(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됨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3-25절(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며, 이어지는 27절(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이 신부의 비유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 7-8절(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정혼한 신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신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⁴⁹

(3) 건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고, 신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48) 케빈 길레스, 홍성희 역, 「신약성경의 교회론」 161.

49) 폴 엔스, 최치남 역, 「신학 핸드북」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458.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연결되는 건물(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교회를 건물에 비유할 때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모퉁잇돌이 되셨다는 표현이다. 모퉁잇돌이란 “건물의 모퉁이에 놓는 큰 주춧돌”⁵⁰이라는 뜻으로 건물 모퉁이에 세워 이를 중심으로 기둥과 벽을 세우게 된다. 교회는 ‘함께 연합되어’ 지어져 가는데 이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건물이 ‘자라듯이’ 생명 있는 조직체인 교회도 새신자들이 ‘건물’에 참여함을 통하여 점점 자라간다.⁵¹

3)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회의 기능

(1) 예배

예배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바울서신에서 예배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로는 로마서 12장 1절(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을 들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제사에 드리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로마서 1-11장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당신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합리적인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⁵² 고로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배 때에 행한 것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을 통해 찬송, 설교, 계시, 방언과 통역 등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50) 학력출판사 사서부, 「국어사전」 (서울: 학력개발사, 1985), 374.

51) 폴 앤스, 최치남 역, 「신학 핸드북」 459.

52) 케네스 보아, 윌리엄 크루이드니어, 김현희 역, 「Main Idea로 푸는 로마서」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499.

하지 않게 하라)을 통해서는 헌금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 전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에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15절(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에게 있어 전도는 마땅하고 당연한 책임이었으며,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에서 말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전도에 대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능임을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제

바울은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koinonia*'를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 하면, 빌립보서 1장 3-4절(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에서는 기도의 교제를, 로마서 15장 26절(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과 고린도후서 9장 13절(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에서는 전도를 위해 헌금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교제의 의미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봉사

교회가 사회 봉사와 구제와 같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울은 서신서에서 봉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8절(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에서는 구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니 구제에 성실하라고 하며, 고린도후서 9장 8-9절(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과 갈라디아서 6장 10절(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에서는 교회 내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의로운 일이라 칭찬하고 있다.

바울은 봉사와 구제 등에 대해 교회 내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3절(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존대하고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 6장 10절(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과 디모데전서 6장 18절(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에서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5) 교육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17절(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목적’으로 주셨다고 말함으로 교회에서의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말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 13절(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과 디모데후서 2장 2절(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에서는 디모데에게 교육하는 것에

전념함으로 교육이 계속하여 이어지도록 권면하고 있다.

바울서신에서 초대교회들에게 교육하라고 한 내용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에서는 ‘신자들간의 사랑’을, 디모데전서 4장 7-8절(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에서는 ‘경건’을, 디모데전서 6장 2절(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에서는 ‘순종과 섬김’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말들로 보아 교육은 초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사회봉사와 복음전도

신약성경에서 사회봉사의 용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가 사용되는데,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라는 뜻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말한다.⁵³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22장 27절(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김’과 ‘봉사’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에서는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 15절(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에서는 ‘통치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오셨음을 강조하셨다.

‘섬김’과 ‘봉사’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누가복음 7장 20절(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53) 손인웅, “교회 사회복지 참여의 신학적 근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1.

당신시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을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즉,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전하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정의(justics)는 균등한 정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 쪽으로 쏠리는 편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⁵⁴ 이렇듯 섬김과 봉사의 삶을 가르치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의 모습들은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다.⁵⁵

예수님의 관심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구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0장 25-37절이다. 25절(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에서 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37절(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 하신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수반한다.

예수님은 왜 병든자, 가난한자, 과부, 고아 등을 도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54) 박철수, 「하나님 나라-기독교란 무엇인가?」 (대전: 대장간, 2015), 229.

55) 성종현, “예수와 디아코니아” 「장신논단」 제12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10-9.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해이며,⁵⁶ 이것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의 전파를 상징한다.⁵⁷ 이삼열은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에 실은 자신의 글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봉사활동이라는 인식이 다른 편에서 파급되게 되어 정의와 평화, 인권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음을 적기도 하였다.⁵⁸

누가복음 9장 10-17절에서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복음전도의 방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 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셨다(11절).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어 배불리 먹게 하셨다(16-17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어 믿음을 갖게 하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나게 하신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박병호가 그의 책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말했듯이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복음전도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역인 것이다.⁵⁹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삶이 서로 의존관계를 지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⁶⁰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47절(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56) 트랜트 C 버틀러, 장미숙 역, 「Main Idea로 푸는 누가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98.

57)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15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0), 124.

58)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15.

59) 박병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364.

60)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156.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을 보면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날마다 늘어갔다는 뜻인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44-46절에 나와있다. 44절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했고, 45절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으며,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성종현은 「교회와 신학」 23집 “섬김의 예수, 섬김의 교회” 에서 “이들은 메시아 예수를 발견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 감동과 기쁨 속에서 나의 것, 너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⁶¹ 사회봉사와 복지선교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인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다.

폴 스티븐스는 자신의 책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실제적인 사회봉사로 인해 좋은 평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⁶²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마땅히 섬겨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선포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⁶³

이러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성경 구절은 바울서신인 에베소서에도 나타난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12절(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서 교회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곳’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61) 성종현, “섬김의 예수, 섬김의 교회”, 「교회와 신학」 23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3), 232-3.

62) 폴 스티븐스, 김성오 역,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123.

63) Ibid., 182.

다가가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⁶⁴

4.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론을 바탕으로 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메시아적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었다.⁶⁵ 그러기에 교회는 인간적인 사교모임, 개인의 필요, 집단의 경제이익 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본질이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를 뜻한다. 이 공동체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머리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 등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란 단순히 교회의 존재와 존속이 아닌 예배, 전도, 교제, 봉사,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전하며, 확장하는 데에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사회적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국 교회의 사명이란 이 땅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역사에 봉사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⁶⁶

64) 진광현 외, 『사회봉사의 이해』 (경기: 양서원, 2010), 50.

65)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기독교서회, 201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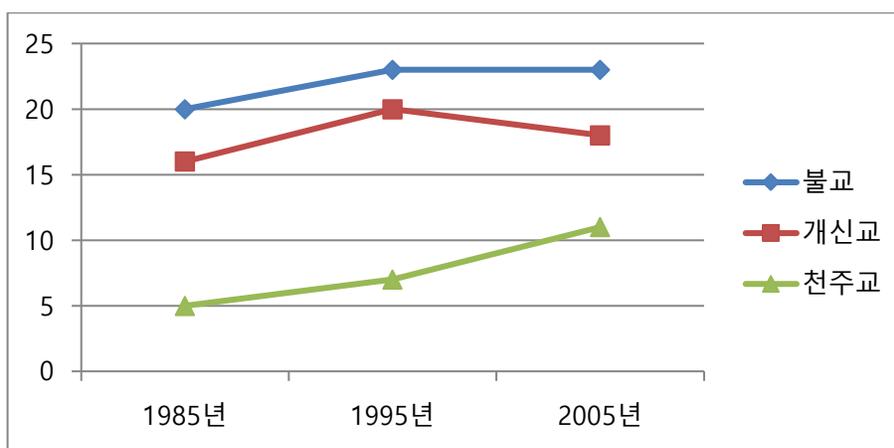
66) Ibid., 27.

5.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표 4〉 3대 종교 인구의 변화⁶⁷

	불교	개신교	천주교
1985년	8,059,624	6,489,282	1,865,397
1995년	10,321,012	8,760,336	2,950,730
2005년	10,726,463	8,616,438	5,146,147

〈그래프 1〉 3대 종교 인구 비율의 변화(단위 %)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종교 통계를 보면 불교와 천주교 신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1995년 이후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 1995년 2,950,730명으로 총 인구 대비 6.6% 였지만, 2005년에는 5,146,147명으로 무려 10.9%로 늘어났다. 왜 천주교 신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개신교 신자는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을까?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들을 다

67) 국가 통계 포털 홈페이지, "주제별 통계/인구총조사/총조사인구/전수부문"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2016년 09월 03일 접속. 1985년, 1995년, 2005년 자료에서 발췌.

나열할 수 없기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013년에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Part III. 제 2장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제시한 문제에 한정하여 정리, 제시한다.⁶⁸

1) 교회 내부의 문제⁶⁹

(1) 목회자 자질 및 리더십 문제

한국에는 현재 각 교단별 신학대학교는 물론 교단인정 신학교 및 무인가 신학교까지 약 400여 개에 이르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중 57개가 인가받은 신학교이고, 나머지는 비인가 신학교이다. 그리고 이들 신학교에서 한 해에 약 7천 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⁷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목회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회자들의 소명이 변질되고, 질적인 차이도 발생하며, 나아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⁷¹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광연신은 그의 책 ‘거룩한 코미디’⁷²에서 돈과 권력, 탐욕을 숭배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표 5>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매우 많다 + 어느정도 있다’⁷³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66%	71%	80%	88%	88%
개신교인	64%	71%	72%	83%	85%
천주교인	60%	64%	69%	79%	89%
비종교인	66%	71%	84%	88%	87%

68)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38-57.

69) Ibid., 438.

70) 정재영, “한국 개신교 신학대학의 현황과 실태” [온라인자료], 목회 사회학 연구소의 연구자료실 <http://www.psik.co.kr/14-06-29>, 2016년 09월 03일 접속.

71)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38.

72) 광연신, 「거룩한 코미디」 (서울:도서출판 오월의 봄, 2015).

73)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35.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의 결과에 따르면 성직자의 자격을 묻는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을 사람들의 비율이 90%에 달했다.⁷⁴ 이는 모든 종교인들의 대답이 비슷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한국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불문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종교인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증거라 하겠다.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의 목사들도 자격에 미달하는 종교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2) 세속화(물질주의와 성장주의)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고, 교인들의 숫자적인 성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회를 비즈니스로 여기는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승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가 보아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심각한 문제인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소위 ‘번영의 복음’(a gospel of prosperity)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⁷⁶ 이러한 물질적 축복과 숫자적인 성장만을 최대의 목표로 둔 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지게 된다. 기복주의에 빠진 교회는 세상의 경영 논리들을 성경적인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고 세상의 기업들과 똑같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3) 개교회 중심주의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기와 쇠퇴기를 맞게 되면서 ‘우리 교회라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들은 전도, 구제 등의 교회 본연의 역할을 뒤로하고, 자기 교회의 유지와 관리에 대부분의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⁷⁷ 개교회 중심주의는 개교회가 교인들의 신앙 생활과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에너지와 열정을 개교회 안으로 축소, 제한해버릴 위험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⁷⁸

74) Ibid., 35.

75)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39.

76) 이승구, “한국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목회와 신학」 2016년 10월호, (서울: 두란노 2016), 47.

77) Ibid., 440.

78)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79.

2) 교회 외부의 문제⁷⁹

(1) 사회 풍조에 떠밀려 감

산업사회가 진행되고, 소비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사회의 풍조에 떠밀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몰들어가고 있다. 신앙이 아닌 물질주의가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형성하고 교회가 교인들에게 맞춰가야만 교회가 유지된다는 목회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⁸⁰

(2) 교회에 대한 사회의 도전

현대 사회는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 확대, 재생산 하게 되는데 교회가 사회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 이념적 측면의 도전이 생겨나고 있다.⁸¹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안티 기독교 세력, 교회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일부 언론들을 통해 일부 교회의 문제들이 전체 교회의 문제인 양 보도되고 있다.

(3) 사회 변화에 대한 둔감함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정통과 보수를 자처하고, 개혁교회임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과거 전통만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시도할 때 진정한 개혁교회라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⁸² 하지만 한국교회는 커진 몸집과 경직된 의사소통 구조로 사회 변화에 둔감 해져 있다.⁸³

79) Ibid., 442.

80)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43.

81) Ibid., 444.

82) 김덕수, 「건강한 목회를 통해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서울:도서출판 대서, 2008),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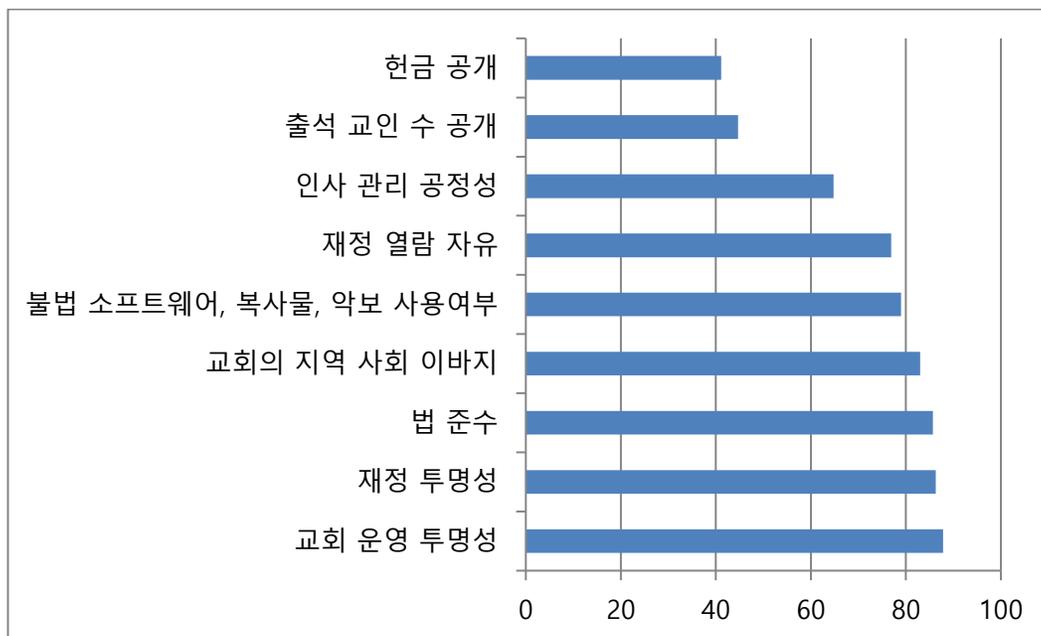
83)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44.

3) 목회자의 문제⁸⁴

(1) 그릇된 목회 태도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선출되고, 특별한 준비와 시취를 거쳐서, 목사로 장립하여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계끔 성경의 지침과 역사적 섭리에 의해서 오늘날의 목사직을 형성하게 되었다.⁸⁵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교회를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들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맞물려,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원인이 되었다.⁸⁶

<그래프 2> 개신교인의 본인 출석 교회에 대한 정직성 평가⁸⁷



84) Ibid., 447.

85) 이승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서울: SFC 출판부, 2011), 107.

86)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47.

87) 목회와 신학 편집부, 「통계로 본 한국교회」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173.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2011년에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교회」에 의하면 교회의 헌금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회 또는 목회자가 헌금 사용에 있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⁸

(2) 목회자의 부족한 자질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는 목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열쇠도 상당 부분 목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⁹ 그렇다면 목회자의 부족한 자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지적인 측면에서는 신학적인 깊이 부족, 인문학적 교양 부족, 리더십 부족이, 인격적인 성품 측면에서는 자아 관리 실패, 말씀과 삶의 불일치, 소통 및 공감 능력 부족 등이다.⁹⁰

(3) 잘못된 목회 목적 및 교회 구조 문제

신성남은 자신의 책 「어쩔까나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목회 비리와 교회 내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목회 비리로 말미암은 갈등은 대개 목사의 독주와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신도들 간의 내분으로 시작됩니다..... 교권을 과도하게 독점한 담임목사들은 교회 자산이나 재정만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까지도 사병화하여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합니다.”⁹¹ 교회의 운영은 수평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교회내의 의사결정 구조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며, 더불어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수준이 매우 높고, 양심이 성숙해야 한다.

88) Ibid., 173.

89) 박영돈,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14), 121.

90)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48.

91) 신성남, 「어쩔까나 한국교회」 91.

4) 성도의 문제⁹²

(1) 정체성 상실의 문제

한국교회 정직성에 대한 평가에서 기독교인은 ‘매우 그렇다’가 18.0%, ‘약간 그렇다’가 45.6%로 긍정적인 대답이 63.6%, ‘별로 그렇지 않다’가 23.8%, ‘전혀 그렇지 않다’가 4.4%로 부정적인 대답은 28.2%였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정반대였다. ‘매우 그렇다’는 3.5%, ‘약간 그렇다’는 19.2%로 긍정적인 대답이 22.7%였고, ‘별로 그렇지 않다’가 55.7%,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7%로 부정적인 대답이 71.4%에 달했기 때문이다.⁹³ 이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듯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도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복신앙과 물질주의

기독교 신앙을 갖는 우선 목적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건강, 물질, 자녀 등의 복을 받고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의 기복신앙과 물질주의는 우선적으로 한국 전통 종교의 기복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⁹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믿음의 본질로 오해하여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된다.⁹⁵

(3) 편한 신앙생활 추구

‘신 유목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살아온 곳에 대한 강한 집착 대신, 현재 어느 곳이 나를 가장 편하게 해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세대이다.⁹⁶ 이러한 세대의 특징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결과로 소형 교회를 기피하고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며, 주일

92)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51.

93) 목회와 신학 편집부, 「통계로 본 한국교회」 166.

94)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71.

95)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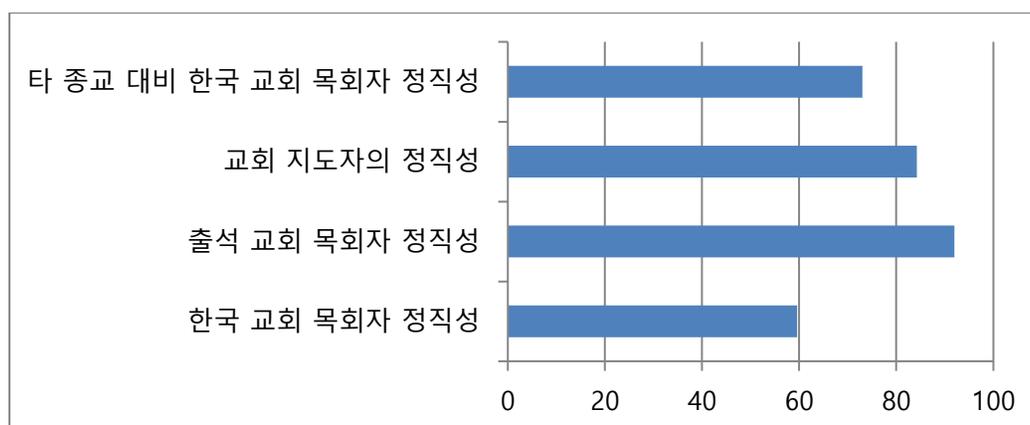
96)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76.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신이 편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4)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

교인들의 상당수가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듣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예화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다.⁹⁷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교인들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설교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으면서 귀에 달콤한 설교에는 비이성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⁹⁸

<그래프 3> 목회자 정직성 평가(단위 %)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2011년에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교회」⁹⁹에 의하면 교회 지도자의 정직성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에서 ‘한국교회 목회자 정직성’은 59.6% 밖에 되지 않지만, ‘출석 교회 목회자 정직성’은 92.0%나 되었다. 이는 자신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97) 이승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122.

98)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453.

99) 목회와 신학 편집부, 「통계로 본 한국교회」 172.

제 3장 지역 연구

본 논문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의 도래, 현도마을에 한정한다.

1. 지리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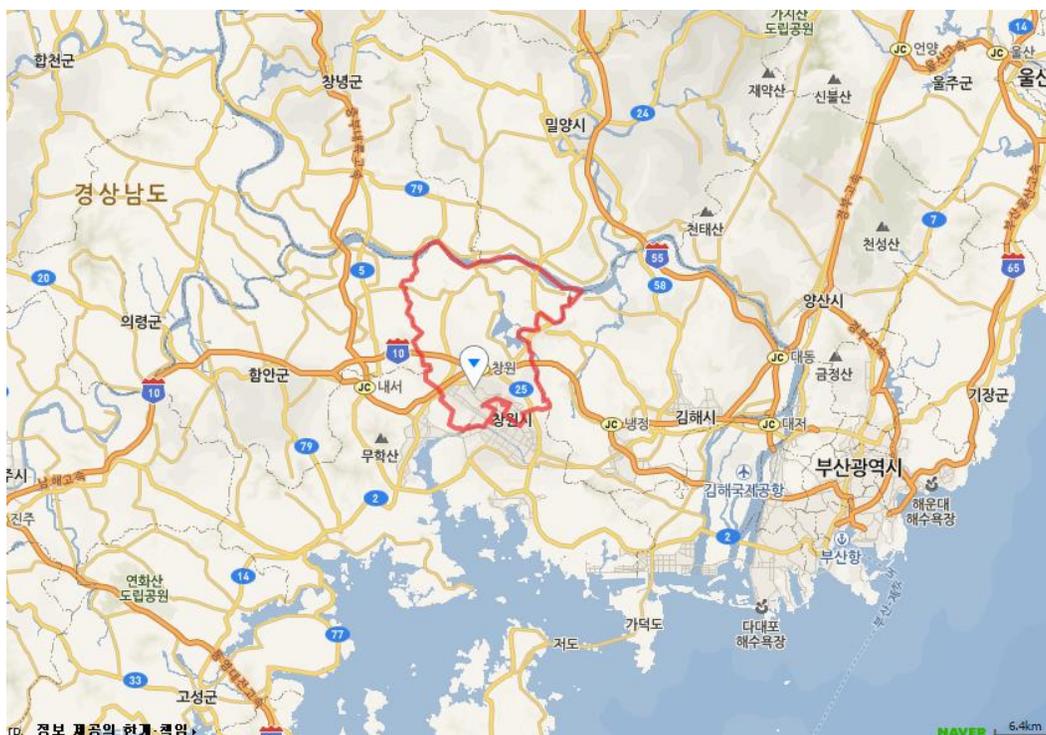
<그림 1> 대한민국 창원시의 위치¹⁰⁰



100) 네이버 지도, “창원시” [온라인 자료], <http://map.naver.com/>, 2016년 08월 06일 접속.

창원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중부남단지역에 위치한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이며, 울산, 부산, 사천을 연결하는 동남 임해 중화학공업지역내의 대규모 기계공업단지로서 경남 중부지역 산업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⁰¹

<그림 2> 대한민국 창원시 의창구의 위치¹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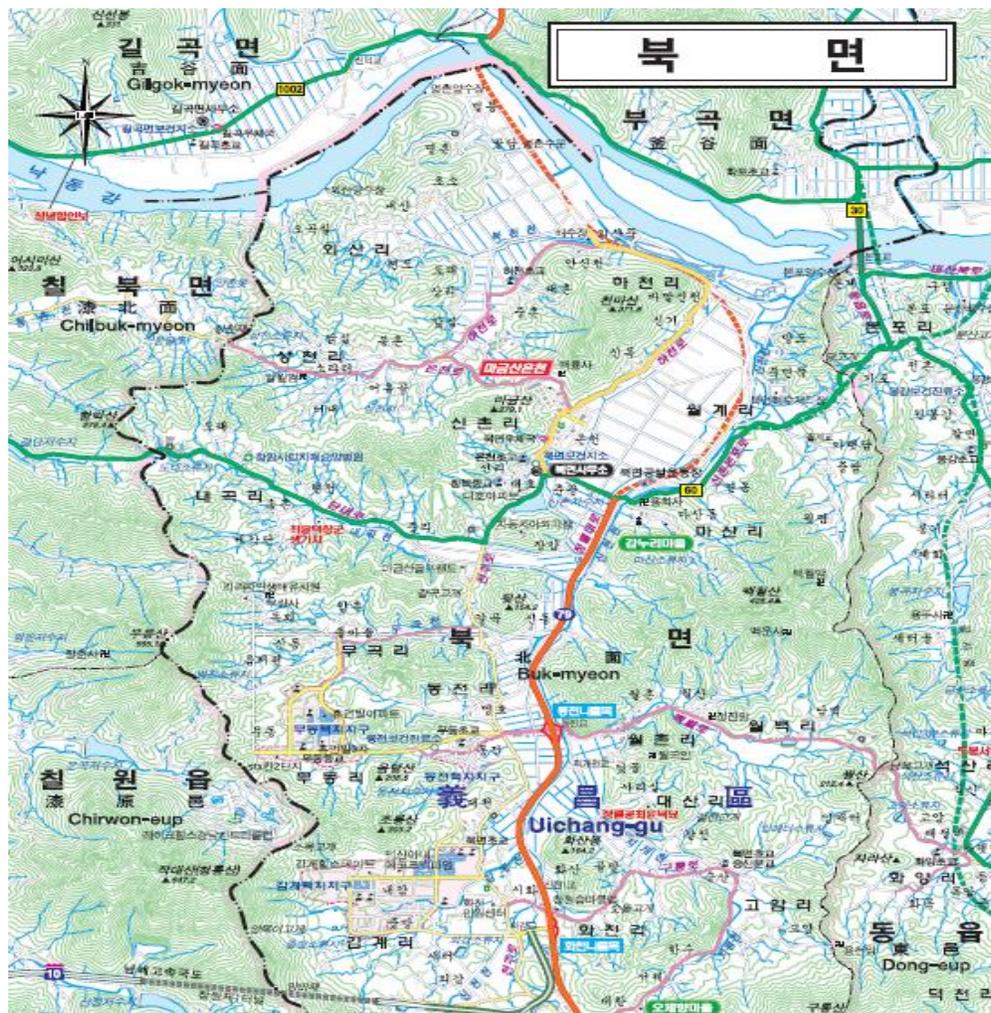


창원시 의창구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의 북동부에 있는 구이다. 2010년 7월 1일 인근의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새로운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신설되었다. 창원시에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이렇게 5개의 구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북면 외산리는 의창구에 속해있다.

101) 창원시청 홈페이지, “창원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1_01.jsp, 2016년 08월 05일 접속.

102) 네이버 지도, “창원시 의창구” [온라인 자료], <http://map.naver.com/>, 2016년 08월 06일 접속.

<그림 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행정지도¹⁰³



북면은 창원 부성의 북쪽에 위치하므로 그 명칭을 북면이라 하였다.¹⁰⁴

103) 창원시 통계정보 시스템, “북면 행정지도”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 2016년 08월 21일 접속.

104) 북면사무소 홈페이지, “면사무소 안내 기본 현황”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town/bookmyeon/02/02_06.jsp?menucode=154, 2016년 08월 21일 접속.

2. 역사적 연구

창원시에 대한 지명에 대한 소개는 ‘창원시 홈페이지’¹⁰⁵ 및 ‘의창구청 홈페이지’¹⁰⁶, ‘북면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원이란 지명은 조선조 제3대 태종대왕 실록8년(1408) 7월 13일에 ‘의창과 회원의 두 현을 합하여 창원부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 지방제도 정비 시 삼량주를 양주(양산)라 하여 1주 1소경 12군을 두게 되었는데, 이때 골자군을 의안군이라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창원 도호부조에 의하면 의창현은 본래 골자군인데 경덕왕이 의안군으로 고치고, 본래 골포현 이었던 회원현을 합포로 고쳐 의안군의 현령으로 삼았다.

고려 때 와서는 현종 9년(1018) 두 현을 금주(김해)의 속읍으로 귀속되었다가 충렬왕 8년(1282) 임오년에 의안을 의창, 합포를 회원으로 승격시킨 이후 조선조 태종 8년(1408) 무자년에 두 현을 합하여 의창의 ‘창’자와 회원의 ‘원’자를 따서 창원부로 만들고 1415년에 도호부로 고쳤다고 문헌은 전한다.

북면은 조선 고종 32년(1895년)에 창원군에 소속되어 24개 리를 관할하다가 일제의 강제합방이 있는 1910년 마산부에 편입, 다시 1914년 국면 폐합시 동면의 북계리 일부를 합쳐 창원군 북면이라고 하고 18개리로 개편 관할하게 됨. 그후 1959년 8월 10일 군조례 제 38호로 화천 출장소를 설치하여 관할해 왔다. 1995년 1월 1일 정부의 도·농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법령 제4774호에 의거 창원시에 편입되었다.

‘도래마을’은 현도와 앞실 사이에 있는 마을로 모퉁이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유래 되었으며, ‘현도마을’은 내산과 도래 사이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는 "터름" 또는 남쪽에 터가 있다 하여 "터남"이라고 했었다.¹⁰⁷

창원시 역사에 대한 연도별 특이점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2016년에 발간한 「창원시 2016년 시정백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시대(가야시대)에는 209년신라 나해왕 14년에 골포국을 포함한 포상팔국이 가라 혹은 아라를 공격하였고, 300년대에는 창원지역에 탁순국이 형성되었다.

둘째, 통일신라(남북국)시대에는 676년 문무왕 16년에 마산은 골포현이 되고, 창원은 골자군이 되었다.

셋째, 고려시대에는 1018년 현종 9년에 의안군과 합포현, 웅신현이 금주지금의 김해에

105) 창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 2016년 03월 01일 접속.

106) 창원시 의창구청 홈페이지, “지명유래” [온라인 자료], http://uichang.changwon.go.kr/sub01/sub01_02.jsp, 2016년 08월 21일 접속.

107)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www.changwon.go.kr/town/bookmyeon/main/main.jsp>, 2016년 03월 01일 접속.

소속되었고, 1282년 충렬왕 8년에 합포는 회원현으로, 의안군은 의창현으로 개칭하였다.

넷째, 조선시대에는 1405년 태종 5년에 창원향교가 지금의 위치에 건립되었고, 1408년 태종 8년엔 의창과 회원의 양 현을 합쳐 창원이라 개칭하고 부(府)로 승격하였으며, 1415년 태종 15년에는 창원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452년 문종 2년에는 웅신현현 웅천동과 완포현과 친읍부곡과 창원의 3개 마을을 합쳐 김해도호부 임내의 웅신진을 웅천현으로 승격시키고 첨절제사가 현감을 겸임하게 되었고, 1627년 인조 5년에는 진해현 현재의 진동, 진전, 진북지역이 창원에 소속되었다. 1629년 인조 7년에는 진해현이 창원에서 분리되었고, 1896년 고종 33년 8월 4일엔 칙령 제36호로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남도의 창원군, 웅천군이 되었다. 1908년 융희 2년 9월 14일엔 칙령 제69호로 진해군 웅천군, 김해 대산면, 칠원 구산면을 창원부에 편입시키고, 칠원군을 함안군에 편입시켰다.

다섯째, 일제강점기에는 1910년에 창원부를 마산부로 고치고, 웅천은 마산부 관할구역으로 개편되었으며, 일본이 군항 설치공사를 개시하였다. 1914년에는 마산부청이 있던 외서면을 따로 떼어 마산부라 하고, 창원부가 창원군이 되면서 그 외 지역은 창원군에 속해졌다. 그리고 창원군이 마산부와 분리되어 창원군 관할로 변경되고, 진해만 요새 사령부가 마산에서 진해로 이전되었다. 1923년에는 철도 경남선 마산-군북간이 개통되었다.

여섯째, 해방 이후엔 1949년에 마산시가 개칭되고 마산항이 재개항 되었으며, 1955년 9월 1일에는 진해읍이 시로 승격하였다. 1960년 3월 15일에 3·15 마산 의거가 일어났으며, 1963년에는 제1회 진해 군항제가 개최되었다. 1970년엔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설치되고, 1973년엔 남해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창원이 기계공업 기지로 설정되었다. 1977년에는 구마 고속도로 개통되고, 통합 마산역이 완공되었다. 1979년에는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1980년에는 창원시가 설치되었으며, 창원군을 의창군으로 개칭하였다.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88호로 창원지구 출장소 관할 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 행정동으로 창원시를 설치하였으며, 15년 뒤인 1995년 1월 1일에 창원군이 해체되어 마산시, 창원시에 통합되었다. 2008년 7월 1일에는 마창대교가 개통되었고, 2010년 7월 1일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으로 2016년 현재의 창원시가 출범되었다.¹⁰⁸

108) 창원시 기획담당관, 「창원시 2016년 시정백서」 (창원:부평디엔피, 2016), 23-9.

3. 사회적 연구

1) 인구 현황

<표 6>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인구 현황¹⁰⁹

행정구역	인구수(명)			세대수
	계	남	여	
창원시 전체	1,067,439	542,089	525,350	417,858
창원시 의창구	253,841	129,483	124,358	100,224
의창구 북면	29,121	14,740	14,381	10,710
북면 도래, 현도마을	55	24	31	31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2016년기준으로 51,664,244명 이었다.¹¹⁰ 이를 기준으로 창원시는 대한민국 인구의 2.1%가 거주하는 곳이며, 창원시 의창구는 0.5%, 창원시 의창구 북면은 0.056%,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도래, 현도마을은 0.0001%가 거주한다.

2) 면적 현황

<표 7>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면적 현황¹¹¹

행정구역	넓이(km ²)
대한민국	100,295.4
경남	10,538.8
창원시	747.6
의창구	211.2
북면	73.6

109) 창원시 통계정보 시스템, “주민등록인구통계”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 2016년 09월 01일 접속.

110) 대한민국 행정 자치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온라인 자료],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2016년 09월 01일 접속.

111)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국토 현황(행정구역별)” [온라인 자료], <http://www.index.go.kr/>, 2016년 09월 01일 접속.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은 100,295.4km²에서, 경상남도 창원시는 대한민국 면적의 10.5%이며, 창원시 의창구는 0.21%, 창원시 의창구 북면은 0.073%에 해당한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도래, 현도마을은 면적 통계가 나와있지 않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면적을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대비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면적 대비

대한민국	51,664,244명 100%	100,295.4 km ² 100%
경상남도 창원시	1,067,439명 2.1%	747.6km ² 10.5%
창원시 의창구	253,841명 0.5%	211.2km ² 0.21%
의창구 북면	29,121명 0.056%	73.6km ² 0.073%

3) 특산품 현황

북면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단감이다. 단감은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1900년대로 추정된다. 최초의 재배지는 창원시 북면 마산리 연동마을이다. 그후 경남 여러 지역으로 재배가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원 북면단감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여 현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 특산물로서 재배면적 950ha에 생산량은 14,064톤이다.¹¹²⁾ 감 수확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는 북면의 산에서 주황색으로 탐스럽게 익은 감을 쉽게 볼 수 있다.

112) 창원시의창구 북면 사무소 홈페이지, “우리면 이야기 / 지역 특산물”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town/bookmyeon>, 2016년 09월 02일 접속.

4) 창원시의 상징

<그림 4> 창원시의 상징



Changwon(창원시의 영문표기)의 'C'자를 이용한 사람모양 3개의 날개를 가진 바람개비는 창원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중핵도시가 될 것이라는 미래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다. 바람개비 중심에서 손을 맞잡고 회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서로 화합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 된 시민의 힘을 표현한다. 3개의 날개 컬러 포인트 중 파란색은 해양(성장, 희망), 주황색은 도시(열정, 창조), 녹색은 자연(생명, 균형)을 상징한다.¹¹³

<그림 5> 창원시의 캐릭터 “피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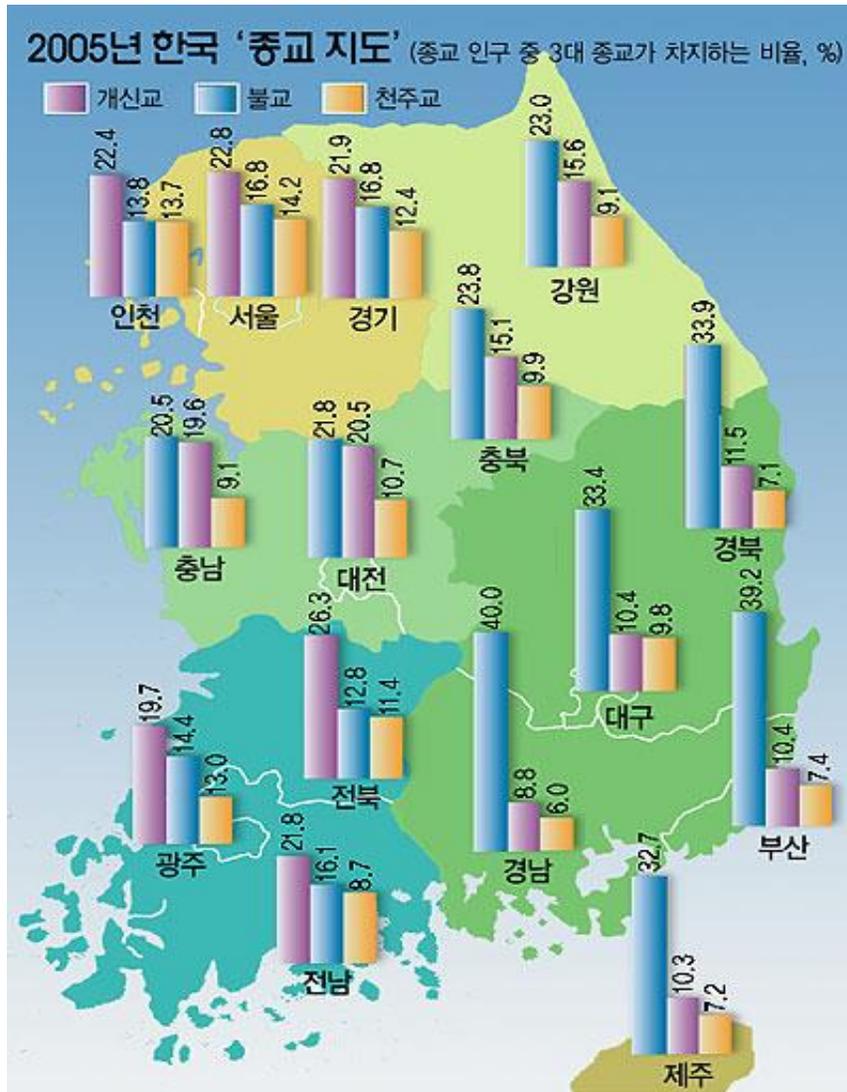
“창원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우다.”는 의미의 “피우미”는 시화인 벚꽃을 귀여운 아이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창원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이자, 시민의 화합과 조화를 돕는 사랑의 메신저로 창원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¹¹⁴

113)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의 상징”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3_01.jsp, 2016년 09월 01일 접속.

114)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의 캐릭터”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3_01_02.jsp, 2016년

5) 종교인 현황

<그림 6> 2005년 한국 종교 지도¹¹⁵



09월 01일 접속.

115) 국가 통계 포털 홈페이지, “2005년 성/연령/종교별 인구-시군구” [온라인 자료], <http://kosis.kr/>, 2016년 09월 02일 접속.

<표 9> 2005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종교인 현황¹¹⁶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합계
인구전체	499,414명	426,784명	149,128명	1,075,326명
종교인구	253,360명	238,760명	85,206명	577,326명
개신교	40,454명	29,677명	17,852명	87,983명
불교	176,050명	179,420명	53,070명	408,540명
천주교	32,563명	24,871명	12,823명	70,257명

종교인 인구 통계의 경우 통계청에서 10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 자료는 2005년 통계이다. 그런데 2005년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기 이전이므로 세 개 시를 합한 것이 현 2016년 통계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시를 모두 조사하였다.

2005년 창원, 마산, 진해시 세 개 시의 종교인 통계를 보면, 전체인구 1,075,326명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77,326명으로 53.7%였다. 이 중 개신교인은 87,983명(8.2%)에 불과했는데, 이는 불교 인구 408,540명(38%)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였다. 종교 인구에 대한 전국 평균을 보면, 2005년 전국 인구 47,041,434명(100%)에서 불교 인구는 10,726,463명(22.8%), 개신교 인구는 8,616,438명(18.3%) 이었는데 이같은 수치를 토대로 창원시 지역은 대한민국의 다른 행정구역과 비교했을 때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행정구역임을 알 수 있다.¹¹⁷

6) 지방자치 의회 현황

2010년 7월1일 개원된 제 1대 통합 창원시 의회는 구)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새로이 시의회를 구성하였다. 제 1대 창원시 의회는 18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47명의

116) 국가 통계 포털 홈페이지, “2005년 성/연령/종교별 인구-시군구” [온라인 자료], <http://kosis.kr/>, 2016년 09월 05일 접속.

117) 국가 통계 포털 홈페이지, “2005년 성/연령/종교별 인구-시군구-행정구역별” [온라인 자료], <http://kosis.kr/>, 2016년 09월 03일 접속.

지역구 의원과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선출된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 7월 1일 출범한 제2대 창원시 의회는 17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38명의 지역구 의원과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된 5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4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014.2.28. 선거구 및 의원 정수조정). 제 2대 의회에서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그리고 5개의 상임 위원회로 구성 되었으며, 위원회 별 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있다.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전·후반기 위원회 구성을 달리한다.

제 4장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개요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도래, 현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2016년 6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었다. 대상 마을은 31가구에 총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설문조사에 응하여 설문을 완료한 인원은 34명으로 응답률은 65.4%이다. 설문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전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에 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응답 완료 후 곧바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 대상자가 연로하여 설문지를 읽는 것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가 설문 문항과 보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고 응답을 받아 표기했다.

설문 조사 후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2.0.0.1 한글판'이다. 분석은 각 항목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하였다. 통계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항에 답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단수 응답 문항에 복수 응답을 한 것들은 모두 무효처리를 했기 때문에 각 문항의 합계가 차이가 있다. 특히 교차 분석시 문항별, 항목별 무응답으로 인해 합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 설문은 연구 대상 마을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을 만들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연령

<표 10> 설문지 질문 1번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① 9세 이하
② 10세 - 19세
③ 20세 - 29세
④ 30세 - 39세
⑤ 40세 - 49세
⑥ 50세 - 59세
⑦ 60세 - 69세
⑧ 70세 - 79세
⑨ 80세 이상

<표 11> 응답자의 연령대

나이(세)	빈도	%
9세 이하	0	0
10 - 19	0	0
20 - 29	1	2.9
30 - 39	3	8.8
40 - 49	3	8.8
50 - 59	13	38.2
60 - 69	9	26.5
70 - 79	4	11.8
80 - 89	1	2.9
합계	34	100.0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연구 대상 마을의 주민들은 50세-79세의 인구가 7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구 대상 마을이 노령화 되어있는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40대의 인구가 20.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을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응답자의 성별

<표 12> 설문지 질문 2번

<p>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p> <p>① 여 ② 남</p>
--

<표 13> 응답자의 성별

성별	빈도	%
여성	19	55.9
남성	15	44.1
합계	34	100.0

연구 대상 마을 주민의 여, 남 성 비율은 55.9% : 44.1%로, 여성이 11.8% 많았다.

3) 응답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표 14> 설문지 질문 3번

3. 현재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번호	나이	성별	관계	직업	연간 수입(원)
1					
2					
3					
4					
5					

<표 15> 응답자 동거인의 연령대

동거인 나이	빈도	%
30 - 39세	1	2.9
40 - 49세	2	5.9
50 - 59세	5	14.7
60 - 69세	5	14.7
70 - 79세	7	20.6
무응답	14	41.2
합계	34	100.0

〈표 16〉 응답자와 동거인의 관계

	빈도	%
모	1	2.9
배우자	19	55.9
무응답	14	41.2
합계	34	100.0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배우자 포함) 역시 50대-70대가 대부분이며, 동거인과의 관계는 배우자임을 알 수 있다. 본 질문에서는 설문 응답자가 동거하는 모든 사람을 적도록 하였는데 응답자의 55.9%인 19명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41.2%인 14명은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자가 주변 지역을 탐문하며 파악한 바로는, 배우자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의 어머니와 거주하는 주민 1명, 아버지와 거주하는 주민 1명, 손자와 거주하는 주민 1명, 손녀와 거주하는 주민 1명이 있었으나, 조사 설문지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설문 응답자들이 고령인 관계로 질문에 자세히 응답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사정(손녀, 손자 등이 거주하는 이유 등을 밝히길 원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거인 조사를 통해 알게된 가장 큰 문제는 홀로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41.2%나 된다는 것인데, 주민의 76.5%가 50세-79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건강이상 등의 문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교차 분석표를 보면 더욱 자세히 나타나는데, 50대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응답자 나이와 동거인의 관계 교차 분석표

나이	배우자	어머니	무응답(홀로거주)
20 - 30세	1	0	0
30 - 39세	2	1	0
40 - 49세	3	0	0
50 - 59세	7	0	6
60 - 69세	6	0	3
70 - 79세	0	0	4
80 - 90세	0	0	1
합계	19	1	14

4) 응답자의 거주 기간

<표 18> 설문지 질문 4번

4.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창원시 북면)에 몇 년간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5년 이하
- ② 6년 - 15년
- ③ 16년 - 25년
- ④ 26년 - 35년
- ⑤ 36년 - 45년
- ⑥ 46년 - 55년
- ⑦ 56년 이상

<표 19>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 기간

거주기간(연)	빈도	%
5 이하	1	2.9
6 - 15	1	2.9
16 - 25	3	8.8
26 - 35	8	23.5
36 - 45	5	14.7
46 - 55	7	20.6
56이상	9	26.5
합계	34	100.0

주민들의 거주 기간은 26년 이상이 85.3%나 되었다. 이로서 연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으며, 마을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거주 기간과 소득과의 교차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고 해서 농업 기반(경작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연구자가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알아낸 바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1ha(3,025평) 이하의 영세농이었다(주민들은 자신의 경작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밝히길 꺼려했기 때문에 지역 탐문을 하면서 만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략적인 평수만 알 수 있었다.).

5) 응답자의 주된 수입원

<표 20> 설문지 질문 5번

5. 귀하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② 회사원(월급 수령, 정규직, 비 정규직 포함)

③ 일용직(농업, 건축 일용직 등)

④ 임대업(토지, 건물 임대 등)

⑤ 국가 보조금(기초 노령연금, 농업 직불금 등)

기타 : _____

<표 21> 주된 수입원

주된 수입원	빈도	%
농업	21	61.8
회사원(정규직)	2	5.9
일용직(비정규직)	2	5.9
임대업	1	2.9
국가 보조금	7	20.6
무응답	1	2.9
합계	34	100.0

연구 대상 지역의 주민들의 주된 수입은 농업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국고 보조금(기초 노령연금 등)이 20.6%로 두번째 였다. 이를 통해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가 보조금(기초 노령 연금, 농업 직불금 등)에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지역

주민들의 수입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기초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주민들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득계층별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103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인기'로 분류하여 89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여성, 장애인, 보훈 대상자'를 포함하는 가구 및 '근로 소득자 가구', '다문화, 한부모 가정 및 농어민 가정'으로 분류하여 100가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¹⁸

이렇게 국가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이었다. 예를 들면 노인 건강 진단,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방문 이미용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보장구 대여 서비스 등은 관할 면 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거의 대부분의 고령 노인들은 이런 복지 혜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복지 혜택들이 도움이 많이 될텐데도 정보의 부족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위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다른 하나는 개인이 보유한 집과 땅 때문인 경우도 있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은 대부분 자가 주택과 텃밭으로 이용하는 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주택(아파트 등), 땅과는 달리 농촌의 농가와 텃밭은 상대적으로 매매가 제한적이고, 자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이 어렵다. 같은 이유로 주택 담보 노후 연금을 받는 것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과 보유한 땅이 있다고 해서 복지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18) 정지선, 김완용,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체계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1), 73-4.

〈표 22〉 수입원 기타

기타 수입원	빈도	%
노령연금	5	14.7
임대업	1	2.9
자녀용돈	6	17.6
직불금	9	26.5
무응답	13	38.2
합계	34	100.0

주 수입원 이외의 수입은 ‘직불금’¹¹⁹⁾이 26.5%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고정 직불금의 경우 논농사(쌀)를 기준으로 2015년에 1ha(3,025평)당 연간 100만 원 인데, 조사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경작면적 1ha 미만의 영세농이기 때문에, 직불금으로 받는 수입은 여러 가지 직불금을 모두 합해도 연간 10-50만 원에 불과했다.

119) 농림 축산 식품부 홈페이지, “소득보존 직불금” [온라인 자료], www.mafra.go.kr/, 2016년 09월 02일 접속.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작 면적 등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 현재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FTA 피해 보전직불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논농업 직불제, 밭 직불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표 23> 나이별 기타 수입교차 분석표

	무응답	노령연금	임대업	자녀용돈	직불금	합계
20 - 29세	1	0	0	0	0	1
30 - 39세	1	0	0	0	2	3
40 - 49세	1	0	0	0	2	3
50 - 59세	8	2	1	0	2	13
60 - 69세	1	2	0	3	3	9
70 - 79세	1	1	0	2	0	4
80 - 89세	0	0	0	1	0	1
합계	13	5	1	6	9	34

연령대별로 기타 수입 항목을 보면, 자신의 주 수입원 이외의 수입은 ‘농업 직불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불금을 받는 금액이 연간 50만 원 이하이고,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 역시 비정기적이고 연간 20-5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표 24> 거주 기간별 주된 수입 교차 분석표

	농업	회사원 (정규직)	일용직 (비정규직)	임대업	국가 보조금	합계
5년 이하	0	1	0	0	0	1
6 - 15년	1	0	0	0	0	1
16 - 25년	2	0	1	0	0	3
26 - 35년	6	1	1	0	0	8
36 - 45년	4	0	0	0	1	5
46 - 55년	3	0	0	1	2	6
56년 이상	5	0	0	0	4	9
합계	21	2	2	1	7	33

거주 기간에 따른 주된 수입원은 다르지 않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요즘은 교통의 발달로 도시 근로자로 농촌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6) 응답자의 연간 총 수입

<표 25> 설문지 질문 6번

6. 귀하의 연간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0만 원 이하
② 1,001만 원 - 1,500만 원
③ 1,501만 원 - 2,000만 원
④ 2,001만 원 - 2,500만 원
⑤ 2,501만 원 - 3,000만 원
⑥ 3,000만 원 이상

<표 26> 연간 총 수입

연간수입(만 원)	빈도	%
1,000 이하	10	29.4
1,001 - 1,500	3	8.8
1,501 - 2,000	7	20.6
2,001 - 2,500	4	11.8
2,501 - 3,000	5	14.7
3,001 이상	5	14.7
합계	34	100.0

연간 총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 주민이 29.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수입

가구원 수	월 소득금액	연 소득금액
1인 가구	2,191,184원	26,294,208원
2인 가구	3,789,124원	45,469,488원
3인 가구	4,720,457원	56,645,484원
4인 가구	5,224,645원	62,695,740원

통계청에서 2014년에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¹²⁰을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금액 45,469,488원에 비하면 조사지역의 주민들은 현저히 적은 소득으로 살고 있었다. 물론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는 한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라는 생활 환경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소득 금액의 현저한 차이는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노년에도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20) 통계청 홈페이지, “2014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 2016년 09월 05일 접속.

<표 28> 연령대별 주요 수입원 교차 분석표

	농업	회사원 (정규직)	일용직 (비정규직)	임대업	국가 보조금	합계
20 - 29세	1	0	0	0	0	1
30 - 39세	2	1	0	0	0	3
40 - 49세	2	0	1	0	0	3
50 - 59세	9	1	1	1	1	13
60 - 69세	7	0	0	0	1	8
70 - 79세	0	0	0	0	4	4
80 - 89세	0	0	0	0	1	1
합계	21	2	2	1	7	33

연령대별로 보면 50-69세의 나이대가 농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농업은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미 고령에 접어든 연령대에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업의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어 있으나 트랙터같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구입한다고 해도 고령의 농업인들의 경우 농기계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농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령의 농업인들은 고액의 일당을 주고 농기계와 기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산물을 수확해도 경제적인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조사지역의 고령의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거나, 경운기 정도의 농기계를 이용해서 경작할 수 있는 적은 면적만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표 29> 연령대별 연간 수입 교차 분석표(단위 : 만 원)

	1,000 이하	1,001 - 1,500	1,501 - 2,000	2,001 - 2,500	2,501 - 3,000	3,001 이상
20 - 29세	0	0	0	0	1	0
30 - 39세	0	0	0	1	0	2
40 - 49세	0	0	0	1	0	2
50 - 59세	2	1	4	2	4	0
60 - 69세	3	2	3	0	0	1
70 - 79세	4	0	0	0	0	0
80 - 89세	1	0	0	0	0	0

연령대에 따른 소득 금액은 같은 연령대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50-59세를 보면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경작지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7) 주된 수입원이 농업일 경우 연간 수입

<표 30> 설문지 질문 7번

7. 귀하의 주된 수입이 '농업'일 경우 수입이 높은 순서대로 작물명과 연간 수입(최근 5년간 평균치)을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번호	작물명	연간 수입(원)
1		
2		
3		

<표 31> 주된 작물명

작물1	빈도	%
단감	17	50.0
쌀	4	11.8
무응답	13	38.2
합계	34	100.0

조사 지역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역은 지역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감이 특산품일 정도로 단감 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 주된 수입원이 단감인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32> 주된 작물의 연간 수입

수입	빈도	%
1,000만 원	4	11.8
1,500만 원	3	8.8
1,800만 원	2	5.9
2,000만 원	5	14.7
2,400만 원	1	2.9
2,500만 원	3	8.8
3,000만 원	2	5.9
3,500만 원	1	2.9
무응답	13	38.2
합계	34	100.0

농업 수입의 50%가 단감이었는데, 이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감을 재배한 지역이며, 단감 재배 역사가 100년에 이르고, 2천ha가 넘는 재배 면적에서 연간 4만여 톤을 생산함으로써 전국 최대 재배면적, 최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원시 동읍과 북면 일대에서 창원시 단감의 90%가 생산되고 있다.¹²¹⁾

단감을 통한 수입은 연간 2,000만 원이 14.7%로 가장 많았으나, 문제는 수입 자체가 너무 적다는 데에 있다. 농업을 통한 연간 수입이 1,000-2,000만 원인 주민이 41.2%나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 대상 지역의 고령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업인 농업을 통해서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121) 창원시의창구 북면 사무소 홈페이지, “우리면 이야기 / 지역 특산물”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town/bookmyeon>, 2016년 05월 01일 접속.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3> 부 수입 작물의 종류

작물2	빈도	%
고구마	2	5.9
단감	3	8.8
식초	1	2.9
쌀	8	23.5
오디	1	2.9
잡곡	2	5.9
무응답	17	50.0
합계	34	100.0

<표 34> 부 수입 작물의 연간 수입

작물2 수입	빈도	%
200	2	5.9
500	9	26.5
1000	5	14.7
1500	1	2.9
합계	17	50.0
무응답	17	50.0
합계	34	100.0

단감 다음으로 수입이 높은 작물은 벼농사(쌀) 이었고, 벼농사를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500만원이 26.5%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벼농사로 얻는 수입이 주 수입이 아닌 부수입일 경우엔 정부 공동수매나 직거래 판매를 통한 현금 수입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과 수확물을 나눔으로서 받게 되는 보상이 대부분이었다. 벼를 수확하고 탈곡과 도정을 마친 뒤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때의 수입은 벼를 시장에 판매할 때와는 달리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쌀을 통한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농업이 주된 수입일 경우 수입이 높은 작물 3번째부터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100만 원 이하) 통계에 의미가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제외하도록 하겠다.

8) 응답자가 농업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워하는 일

<표 35> 설문지 질문 8번

8. 귀하의 주된 수입이 '농업'일 경우 농업과 관련되어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채배. 이유 :
- ② 판매. 이유 :
- ③ 보관. 이유 :
- ④ 가공. 이유 :
- ⑤ 기타 : _____. 이유 :

<표 36> 농업과 관련한 주된 어려움

농업 난제	빈도	%
재배	6	17.6
판매	12	35.3
보관	2	5.9
가공	0	0
기타	2	5.9
무응답	12	35.3
합계	34	100.0

<표 37> 연간 수입별 농업 난제 교차 분석표

	재배	판매	보관	가공	기타	합계
1000만 원 이하	2	1	0	0	0	3
1500만 원	1	0	1	0	0	2
2000만 원	2	2	1	0	1	6
2400만 원	0	1	0	0	0	1
2500만 원	0	1	0	0	0	1
3000만 원	0	4	0	0	0	4
4000만 원	0	1	0	0	0	1
4500만 원	0	1	0	0	1	2
5000만 원	1	1	0	0	0	2
합계	6	12	2	0	2	22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판매였다. 이는 주민들의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 하면 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법의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기존의 판매 방법인 농협의 위탁 판매 또는 농산물 시장의 경매만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경우 농작물별로 농가들의 출하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출하량이 일시에 많아져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직거래를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 농부들은 젊은 농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이는 <표 38>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판매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가격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나 되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주민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농업인들 대부분이 1차 생산물의 판매만을 통해서만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을 가공하여 2차, 3차 생산물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더 많은 수입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주민들에게 농산물을 가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농번기에는 너무 바빠서 가공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창고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표 38> 판매가 어려운 이유

이유	빈도	%
가격	12	35.3
무응답	22	64.7
합계	34	100.0

농산물을 판매함에 있어 어려운 이유는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농산물은 수확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농가마다 출하시기가 겹쳐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산물을 경매에 내놓게 되면 농산물의 경매 낙찰 가격이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구입과 재배 및 수확 시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의 기본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기본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직거래를 통해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손해를 면할 수 있지만 농부들의 경우 농번기 때는 직거래를 하기 위한 또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신들의 농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직거래 판매를 도와 줄 수 있는 협동조합 또는 판매장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 39> 농업 난제별 성별 교차 분석표

	재배	판매	보관	가공	기타
여	4	6	1	0	0
남	2	6	1	0	2

성별에 따른 농업의 어려운 점 역시 모두 ‘판매’ 였다.

<표 40> 연령대별 농업에서 어려움 교차 분석표

	재배	판매	보관	가공	기타	합계
20 - 29세	0	1	0	0	0	1
30 - 39세	0	2	0	0	0	2
40 - 49세	1	0	0	0	1	2
50 - 59세	2	7	0	0	0	9
60 - 69세	3	2	2	0	1	8
70 - 79세	0	0	0	0	0	0
80 - 89세	0	0	0	0	0	0
합계	6	12	2	0	2	22

농업에 대한 연령대별 어려움을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판매’를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농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50-59세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60-69세에서는 ‘판매’보다도 ‘재배’ 즉 농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의 농업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작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하는 양이 적기 때문인 것을 보인다. 70세 이후로는 농업에 대한 어려움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70대 이후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 응답자가 농업에서 은퇴하기 원하는 나이

<표 41> 설문지 질문 9번

9. 귀하의 주된 수입이 농업일 경우 농업에 몇 세까지 종사하기를 원하십니까?

_____세

〈표 42〉 농업 은퇴 희망 연령

나이	빈도	%
65세	3	8.8
70세	9	26.5
72세	1	2.9
75세	6	17.6
80세	3	8.8
무응답	12	35.3
합계	34	100.0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우 70세까지 농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70세 이후에도 육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많았는데, 75세까지 농업에 종사하길 원한다는 대답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로는 본인이 소유한 땅을 휴경지로 둘 수 없어서였다.

〈표 43〉 성별에 따른 원하는 농업 종사 나이 교차 분석표

	65세	70세	71세	75세	80세
여성	2	7	0	2	0
남성	1	2	1	4	3

성별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나이는 여성은 70세까지, 남성은 75세까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44> 연간 수입 금액별 농업 은퇴 희망나이 교차 분석표

	65세	70세	72세	75세	80세	합계
1000만 원 이하	0	1	0	2	0	3
1001 - 1500만 원	0	0	0	2	0	2
1500 - 2000만 원	0	3	0	1	2	6
2001 - 2500만 원	0	0	1	1	0	2
2501 - 3000만 원	2	2	0	0	0	4
3001만 원 이상	1	3	0	0	1	5
합계	3	9	1	6	3	22

표에서 보듯이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나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입이 적을수록 은퇴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령이 되어도 농업에서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연구자의 탐문 조사에 의하면 조사지역의 주민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70세 이전에 농업에서 은퇴를 원하고 있었다.

10) 응답자가 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표 45> 설문지 질문 10번

10.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표 46>거주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빈도	%
건강	2	5.9
경제	21	61.8
교육	1	2.9
노동	7	20.6
농약	1	2.9
자녀교육	1	2.9
무응답	1	2.9
합계	34	100.0

현 거주지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였다.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치 않고, 평균소득 역시 연 2,000만 원 정도로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¹²²

11) 응답자의 종교

<표 47> 설문지 질문 11번

<p>1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p> <p>① 기독교(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 _____</p>
--

122) 국민 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홈페이지, “2016년 근로자 연평균 소득” [온라인 자료], www.nhis.or.kr, 2016년 09월 04일 접속. 3인 가구 이하 57,799,980원, 4인 가구 64,717,848원, 5인 가구 65,704,836원.

<표 48> 응답자의 종교 현황

종교	빈도	%
기독교	3	8.8
불교	11	32.4
천주교	2	5.9
무교	12	35.3
기타	2	5.9
무응답	4	11.8
합계	34	100.0

응답자의 종교는 무교가 35.3%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32.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기독교는 8.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18.3%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지만, 주변 지역인 경남 창원시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이 8.1%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¹²³

123) 대한민국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 통계-인구, 가구-인구 총조사-인구부문-전수부문-성/연령/종교별 인구”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 2016년 09월 03일 접속.

12) 응답자의 협동조합 가입 의사

<표 49> 설문지 질문 12번

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생긴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이유 :

② 아니오. 이유 :

③ 조건부 예. 이유 :

④ 조건부 아니오. 이유 :

⑤ 보류. 이유 :

<표 50> 협동조합 동참 의견

	빈도	%
예	20	58.8
아니오	14	41.2
조건부 예	0	0
조건부 아니오	0	0
보류	0	0
합계	34	100.0

거주 지역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생긴다면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58.8%였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에 이미 가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협의 경우 ‘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 직거래 농산물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촌 지역의 직거래 매장의 경우 해당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살 필요가 없어서 판매량이 매우 적고, 대도시의 직거래 매장은 생산자가 매일 매장에 가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택배를 통한 직거래 판매를 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 51> 조합 가입 의사 “예”이유

	빈도	%
공동생산	1	2.9
기술	1	2.9
생산	4	11.8
판매	11	32.3
판매 도움	1	2.9
편리	2	5.9
무응답	14	41.2
합계	34	100.0

협동 조합이 생길 경우 참여하겠다는 이유는 판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현재 자신들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의 경우 농산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판매에는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한 조합의 새로운 기능은 농산물 판매에 있다고 하겠다.

<표 52> 조합 가입 의사 “아니오”이유

	빈도	%
노령	5	14.7
농사 안함	7	20.6
수확 적음	2	5.9
무응답	20	58.8
합계	34	100.0

협동조합이 생겨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응답(20.6%)과 노령(14.7%)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노령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특성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노령으로 인한 농업의 중단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중시켜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표 53> 연령대별 협동조합 가입의사 교차 분석표

	예	아니오
20 - 29세	1	0
30 - 39세	2	1
40 - 49세	2	1
50 - 59세	8	5
60 - 69세	7	2
70 - 79세	0	4
80 - 89세	0	1

<표 54> 거주 기간별 협동조합 가입의사 교차 분석표

	예	아니오
5년 이하	0	1
6 - 15년	1	0
16 - 25년	2	1
26 - 35년	6	2
36 - 45년	3	2
46 - 55년	4	3
56년 이상	4	5

<표 55> 연간 수입별 협동조합 가입의사 교차 분석표

	예	아니오
1,000만 원 이하	2	8
1,001 - 1,500만 원	2	1
1,501 - 2,000만 원	5	2
2,001 - 2,500만 원	2	2
2,501 - 3,000만 원	4	1
3,001만 원 이상	5	0

<표 56> 주된 수입원 별 조합 참여의사 교차 분석표

수입원	예	아니오
농업	19	2
회사원	0	2
일용직	0	2
임대업	0	1
국가 보조금	0	7

나이, 거주 기간, 연간 수입에 따라 협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의견은 모두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다른 교차 분석 결과에서도 거의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협동조합 가입 의사는 나이, 거주 기간, 연간 수입과는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 여부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돕겠다는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해서 안타까웠다. 다만, 연간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판매할 농산물이 적기 때문에 판매를 도와줄 조합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 가입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13) 응답자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

<표 57> 설문지 질문 13번

13.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 ②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표 58> 교회에 대한 호감도

	빈도	%
매우 좋다	8	23.5
좋다	7	20.6
보통이다	19	55.9
나쁘다	0	0
아주 나쁘다	0	0
합계	34	100.0

본 연구 대상 지역에는 개척된 지 26년 된 'A'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교회의 행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보통이다(55.9%)'라는 답변의 의미는 교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교회에 대한 생각에 대한 교차분석표는 다음과 같다.

<표 59> 나이대별 교회에 대한 호감도교차 분석표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20 - 29세	0	0	1	0	0
30 - 39세	2	0	1	0	0
40 - 49세	1	1	1	0	0
50 - 59세	4	1	8	0	0
60 - 69세	0	3	6	0	0
70 - 79세	1	1	2	0	0
80 - 89세	0	1	0	0	0

14) 응답자의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

<표 60> 설문지 질문 14번

<p>14. 기독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① 매우 좋다.</p> <p>② 좋다.</p> <p>③ 보통이다.</p> <p>④ 나쁘다.</p> <p>⑤ 매우 나쁘다.</p>
--

〈표 61〉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

	빈도	%
매우 좋다	6	17.6
좋다	6	17.6
보통이다	20	58.8
나쁘다	2	5.9
아주 나쁘다	0	0
합계	34	100.0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 대한 생각은 ‘보통이다’가 55.8%였는데, 이 역시 위의 질문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주위 이웃들에게 영향력이 없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자가 마을 노인정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동안에 설문지를 작성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누가 교회에 다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연령대별로 교인들에 대한 생각의 교차분석표는 다음과 같다.

〈표 62〉 나이별 교인들에 대한 호감도 교차 분석표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20 - 29세	0	0	1	0	0
30 - 39세	1	1	1	0	0
40 - 49세	1	1	1	0	0
50 - 59세	3	1	8	1	0
60 - 69세	0	1	7	1	0
70 - 79세	1	1	2	0	0
80 - 89세	0	1	0	0	0

15) 응답자의 교회 출석 의사

<표 63> 설문지 질문 15번

1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교회가 생긴다면 교회에 다닐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이유 :

② 아니오. 이유 :

③ 조건부 예. 이유 :

④ 조건부 아니오. 이유 :

⑤ 보류. 이유 :

<표 64> 교회 출석 의사

	빈도	%
다닌다	3	8.8
안 다닌다	11	32.4
조건에 따라 다닌다	8	23.5
조건에 따라 안 다닌다	0	0
잘 모르겠다	12	35.3
합계	34	100.0

자신들의 어려움(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 경제적인 지원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교회가 생긴다면 교회에 다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다니지 않겠다’는 응답이 32.4%였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다닌다’는 의견이 23.5%였다. ‘다닌다’고 답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안 다닌다’고 답한 주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종교적)신념’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11.8%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9%, ‘피곤해서’도 5.9% 였다.

<표 65>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유

	빈도	%
건강	2	5.9
시끄럽다	1	2.9
신념	4	11.8
피곤	2	5.9
현재 교회 출석 중	2	5.8
무응답	23	67.6
합계	34	100.0

앞의 설문 분석 자료 중 종교를 묻는 질문에 불교가 32.4%, 천주교가 5.9%, 무교가 35.3% 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가 생긴다고 해서 종교를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은 무교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제 5장

설문의 분석과 지역 공동체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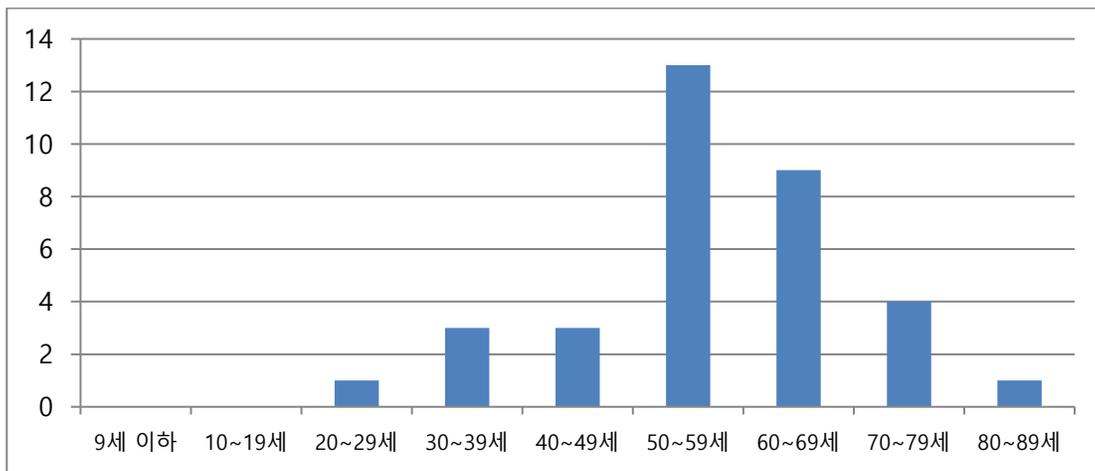
이상의 설문 조사에서 얻은 통계자료를 통해 본 연구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도래, 현도마을의 상황과 필요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1. 설문조사의 분석

설문조사 통계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도래, 현도마을 주민들의 분포, 종교 상황, 직업군, 교육 상황, 경제적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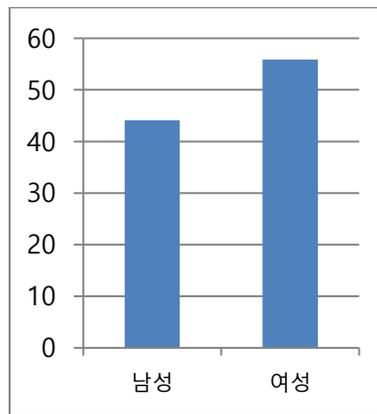
1) 연령대 : 연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 연령대는 5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로 26.5%, 70대가 11.8%로 50-79세의 인구가 7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을이 노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4>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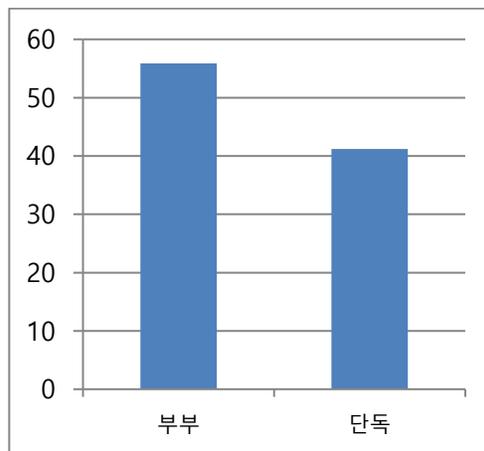
2) 성 비율 : 연구 대상 마을 주민의 여성과 남성의 성 비율은 55.9% : 44.1%로, 여성이 11.8% 많았다.

<그래프 5> 주민들의 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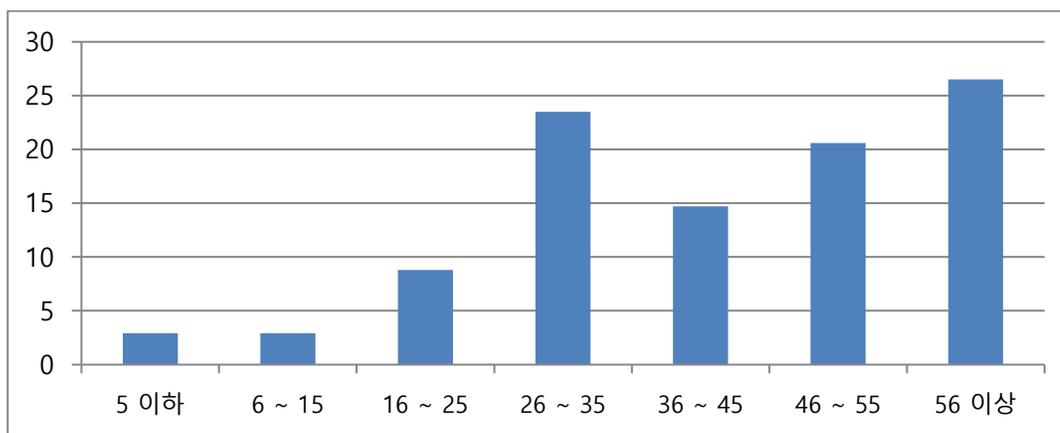
3) 동거인 관계 : 응답자의 55.9%인 19명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41.2%인 14명은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41.2%나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주민의 76.5%가 50세-79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프 6> 동거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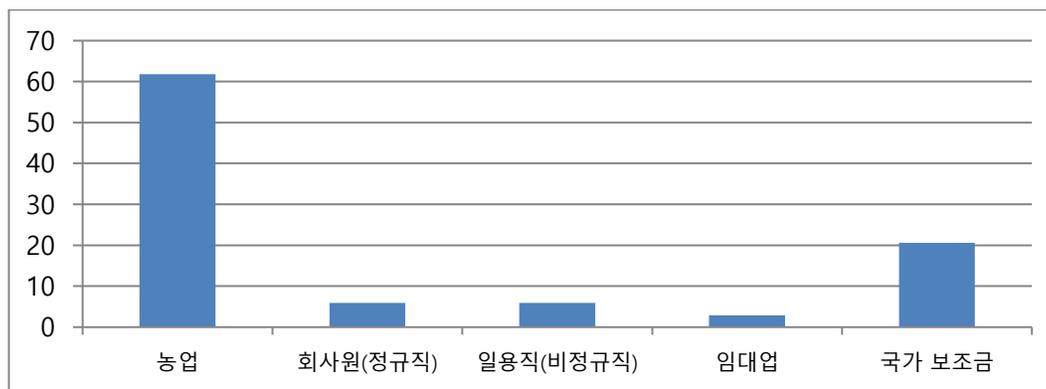
4) 거주 기간 :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은 26년 이상이 85.3%나 되었는데 이를 통해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 7>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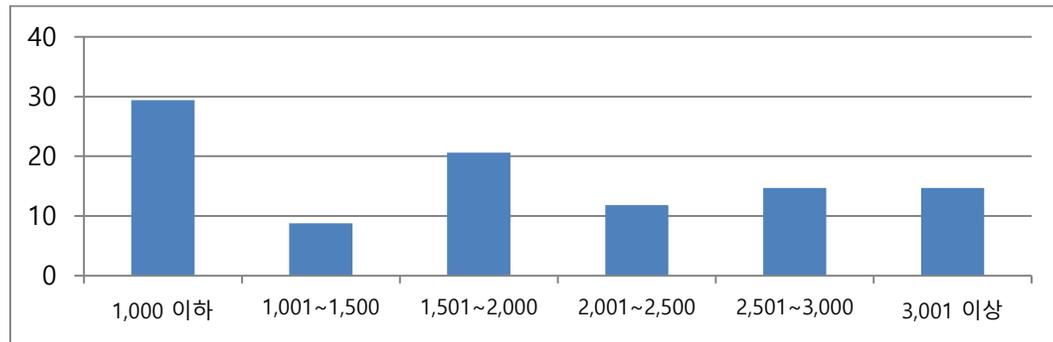
5) 주 수입원 : 마을 주민들의 주된 수입은 농업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국고 보조금 (기초 노령 연금 등)이 20.6%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1ha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이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래프 8> 주된 수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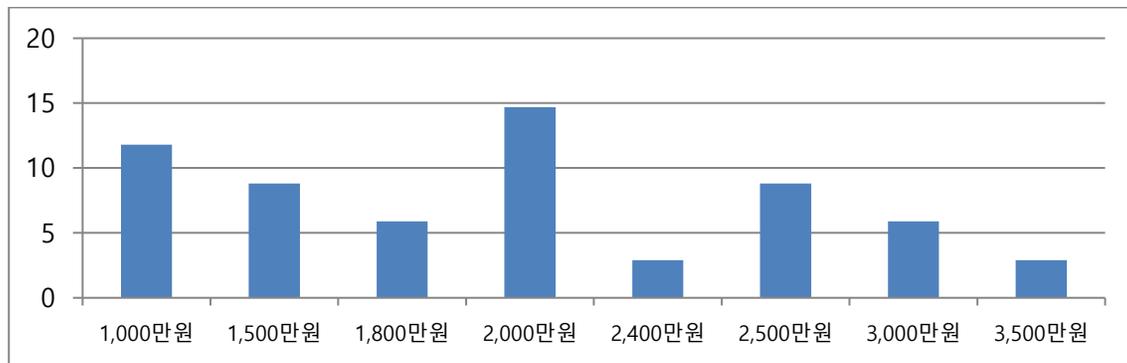
6) 연간 수입 : 주민들의 연간 총수입은 1,000만 원 이하의 주민이 29.4%로 가장 많았는데, 도시 근로자의 평균 수입(2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금액 45,469,488원)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프 9> 주민들의 연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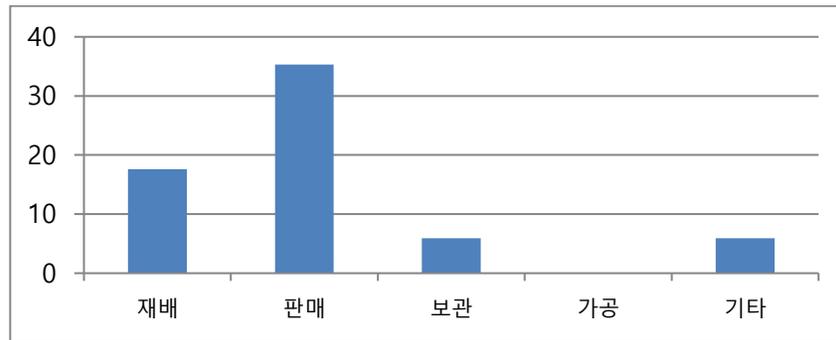
7) 농업 연간 수입 : 주민들 중 주된 수입원이 농업일 경우 수입이 가장 높은 농작물은 단감이었으며, 단감을 통해 얻는 수입은 연간 2,000만 원이 14.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농업을 통한 연간 수입이 1,000~2,000만 원인 주민이 41.2%나 된다는 사실이 연구자를 안타깝게 했다.

<그래프 10> 농업으로 인한 연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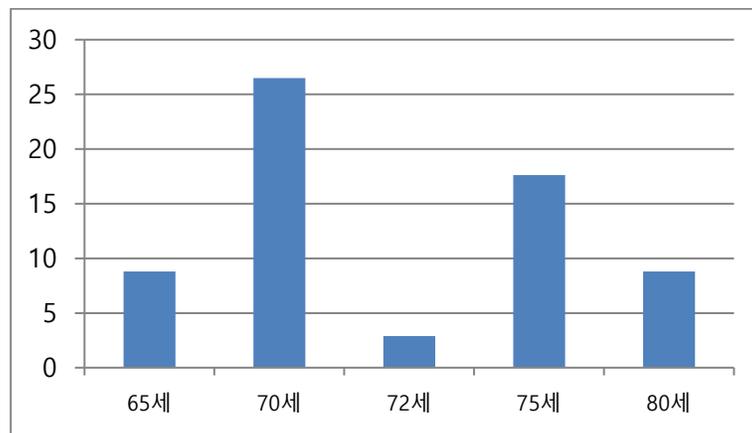
8) 농업에서 어려운 분야 : 주된 수입원이 농업일 경우에 농업과 관련되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농산물의 판매(35.3%)였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출하시기, 고령으로 인한 직거래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이 문제였다.

<그래프 11> 농업에서 어려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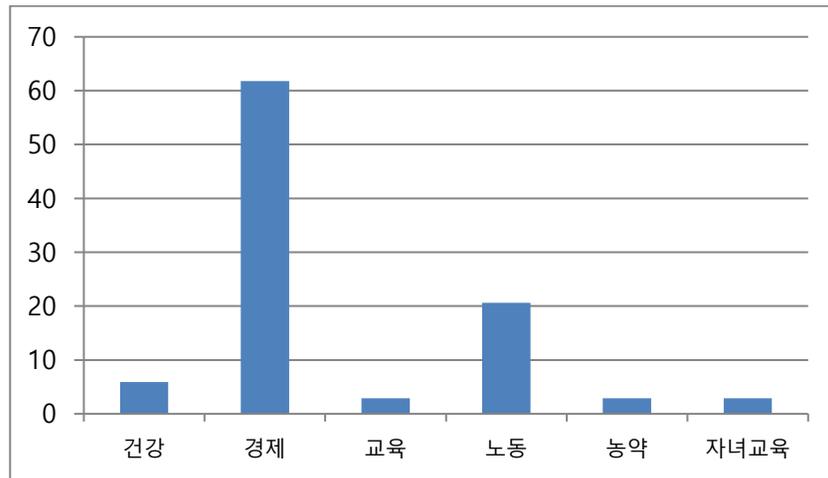
9) 은퇴 나이 : 주민들은 농업에 70-75세까지 종사하기 원하는 비율이 47%에 달했는데, 이는 고령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래프 12> 농업에서 은퇴하기 원하는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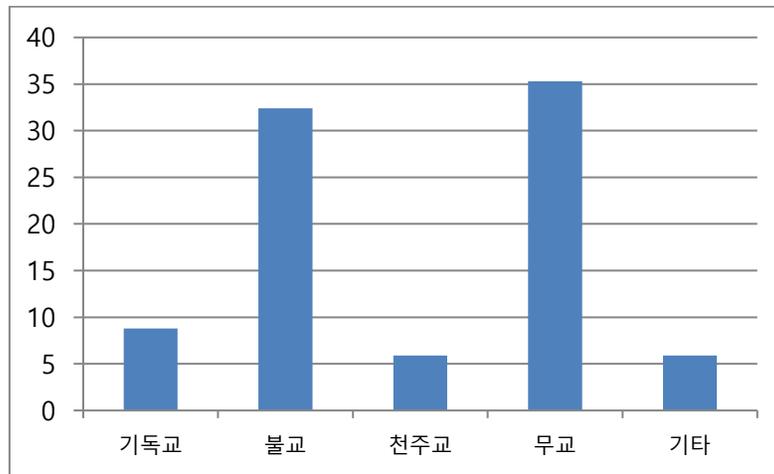
10) 주민들의 어려움 : 주민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느껴온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가 6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프 13> 주민들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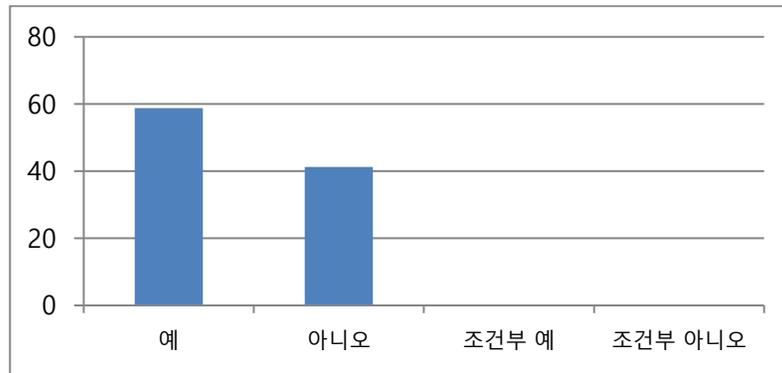
11) 종교 : 주민들의 종교는 무교 35.3%, 불교 32.4%, 기독교 8.8%였다.

<그래프 14> 주민들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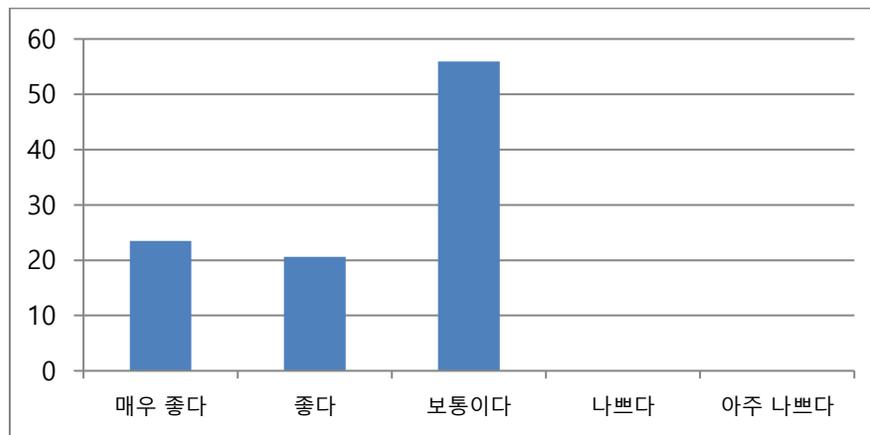
12) 협동조합 가입의사 : 거주 지역에 농업의 어려움(판매)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생기면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58.8%였는데, 그 이유는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래프 15> 협동조합 가입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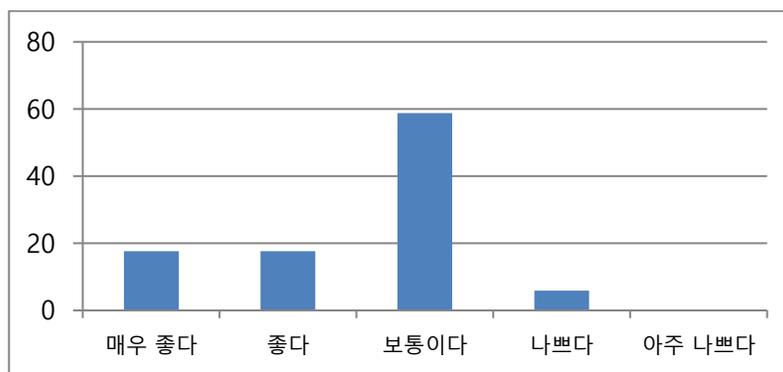
13) 교회 호감도 : 주민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나쁘다', '아주 나쁘다' 모두 0%)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5.9%인 것으로 보아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 16> 교회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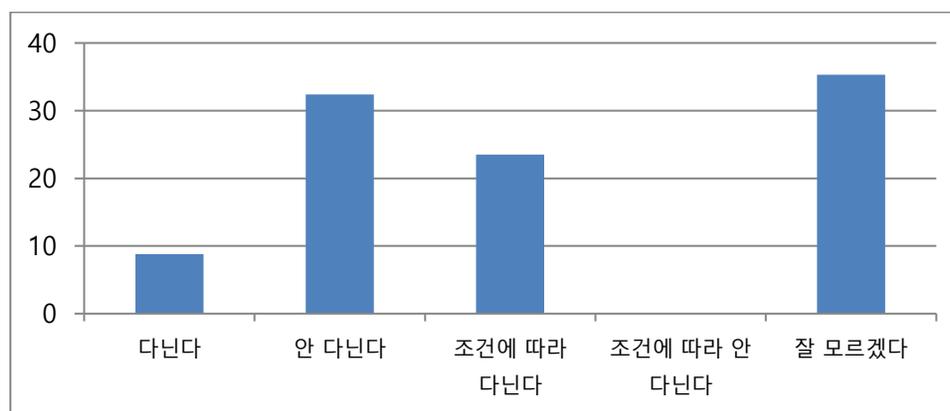
14) 교인 호감도 :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 대한 생각 역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58.8%로 가장 많았다.

<그래프 17> 교인들에 대한 호감도



15) 교회 출석 여부 : 거주 지역에 귀하의 어려움(판매)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생기더라도 '다니지 않겠다'는 의견이 32.4%나 되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 역시 35.3%나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도움은 받더라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프 18> 교회 출석 여부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령과 경제문제였고, 이러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산물의 판매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농촌 목회지역에서는 목회자가 목회 활동의 많은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교육 이외의 농촌 목회 활동에 특화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농촌교회 목회를 시작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치거나 낙오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농촌교회의 목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간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자가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할 때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곳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신학교 선, 후배들이었고, 실제로 농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제언

세계 최대 교회가 수두룩할 만큼 괄목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는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도시 중대형 교회는 주변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또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농촌 및 도시의 작은 교회들의 개척과 자립을 위한 지역 조사의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번 설문 경험에서 정리된 효과적인 지역 조사의 몇 가지 원리를 제언한다.

첫째, 지역 주민들을 설문 조사함에 있어 되도록 전수 조사를 하고, 개별 심층 면담을 병행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지역의 인근 지역 주민들 중 일부에게도 설문을 받아 연구 대상지역 주민들과 통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설문지 제작에 있어 범주별 척도보다는 되도록이면 명명 척도 및 동간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국교회 내 농어촌교회들 그리고 도시의 소형 교회들의 재정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교회 또는 교단마다 개척 또는 작은 교회들의 자립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3. 비전 빌리지 제안

본 논문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지역 공동체인 ‘비전 빌리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연구자는 비전 빌리지를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지역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약 2년동안 지역 사회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전 빌리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근 땅 1,147m²를 매입하여 실제 건축을 시작하였다. 비전 빌리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VI장. 결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의 비전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속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교회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복음주의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공동체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실현을 통해서 언제일지 모를 말세를 미리 준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의 목적

비전 빌리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는데 있다.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전도와 선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교육)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존(경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나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비전 빌리지는 크게 네 가지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선교) 공동체인 비전 교회(Vision Church).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인 비전 학교(Vision Academy).

셋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존하고 경작하는 공동체인 비전 농장(Vision Farm).

넷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나눔 공동체인 비전 빌라(Vision Villa).

이 네 개의 공동체는 각각의 비전을 통해서 복음주의 공동체의 비전 빌리지를 이루어가게 된다.

3)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의 실현

(1) 비전 교회(Vision Church)

비전교회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양적 성장의 틀을 벗어나 작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개척한다. 가정교회, 협동조합교회, 전원교회 등의 모습으로 한 교회당 30가정 이내의 작은 교회를 지향하여 목회자가 지근 거리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성도들과 매우 친밀하게 생활해야 한다. 물론 작은 교회들의 문제점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재정 자립이 어렵고, 목사와 성도간, 성도 상호간 과도한 친밀감이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주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재정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우선 교회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회 고정비 지출 항목은 건물 임대료, 대출 이자, 기타 공과금, 목회자 생활비 등이다. 이러한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일정 성도 숫자가 되기 전까지는 목회자의 집이나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개척시 태권도장, 카페, 식당, 학원 등의 공간을 주일에만 빌려 사용할 수 있다면 적은 임대료 혹은 임대료 없이도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이나 기타의 장소를 빌려서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성도들의 숫자가 늘고, 모인 성도들의 뜻과 헌신이 모여서 상가 등을 빌리고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예배장소를 옮겨가는 것이다. 목회자의 생활비 역시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활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벌어서 생활하는 자비량 목회를 일정기간 하면 된다.¹²⁴

교인들과의 과도한 친밀감 때문에 상호간의 실망감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교회 개척 초기부터 서로를 적당히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한다면 대부분 예방할 수

124) 교단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신학 관점에 따라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목회자 이중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양쪽의 의견이 분분 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실망감의 문제는 비단 작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이다. 다만, 작은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실제로 농촌지역에 전세를 얻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2년동안 사역하면서 가정교회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연구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공과금 이외의 고정비 지출은 없었으며, 개척 첫해는 생활비의 90%를 건설 현장 일용직, 농업 일용직, 타 교회 초청 설교 및 강의 등으로 직접 마련해서 생활했고, 나머지 10%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들과 지인들의 헌금으로 채워졌다. 개척 두 번째 해에는 연구자의 비전을 듣고 돕는 손길들이 늘어나서 생활비의 60%는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자가 직접 마련했고, 30%는 협력교회의 후원, 10%는 지인들의 헌금으로 채워졌다.

<그림 7> 연구자의 집에서 개척한 비전 교회의 간판을 만드는 모습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 고정비 지출문제가 해결되니 교회 주변의 마을 주민이 31가구에 52명밖에 되지 않고, 기독교인은 3명(8.8%)밖에 되지 않는 복음이 척박한 곳에서도 지난 2년간 교회가 유지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이웃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농번기때는 농사일을 돕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교회 절기 행사로 마을 노인정에서 식사를 대접했더니 주민들이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나누어주어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택배로 보내줄 정도가 되었다.

연구자가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함께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예배를 잘 드리며, 예배 드리는데 차차 익숙해져 갔다.

최근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의 인원이 10-20% 감소했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21세기초부터 최근까지 놓여촌, 중소형 도시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60-70%나 되었다.¹²⁵ 전국 평균 52%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교회의 다음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의 대안이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라고 생각한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이들을 배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배려한다면 아이들이 부모세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받게 될 것이다.

(2) 비전 아카데미(Vision Academy).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300-400만 명으로 줄어들고, 교회의 교육부서는 15-40만 명으로 급감한다. 현재 6만5천 개 정도되는 한국교회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¹²⁶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음세대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는 무엇일까? 바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주일 1시간 20분 정도의 예배와 분반공부로는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깊이있고, 전문적인 양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필요하다. 비전 아카데미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125)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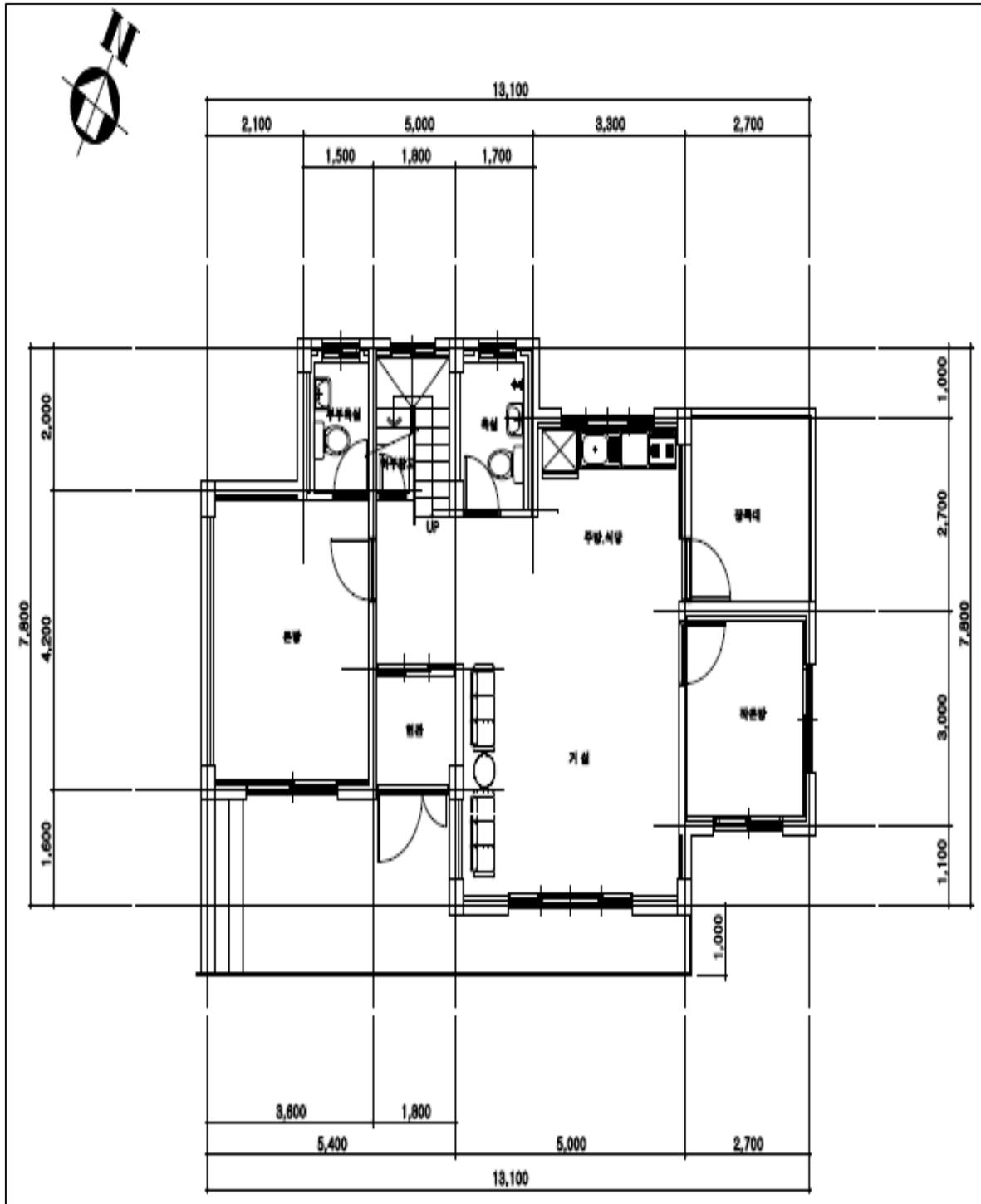
126) Ibid., 207.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전원 홈스테이(homestay)를 시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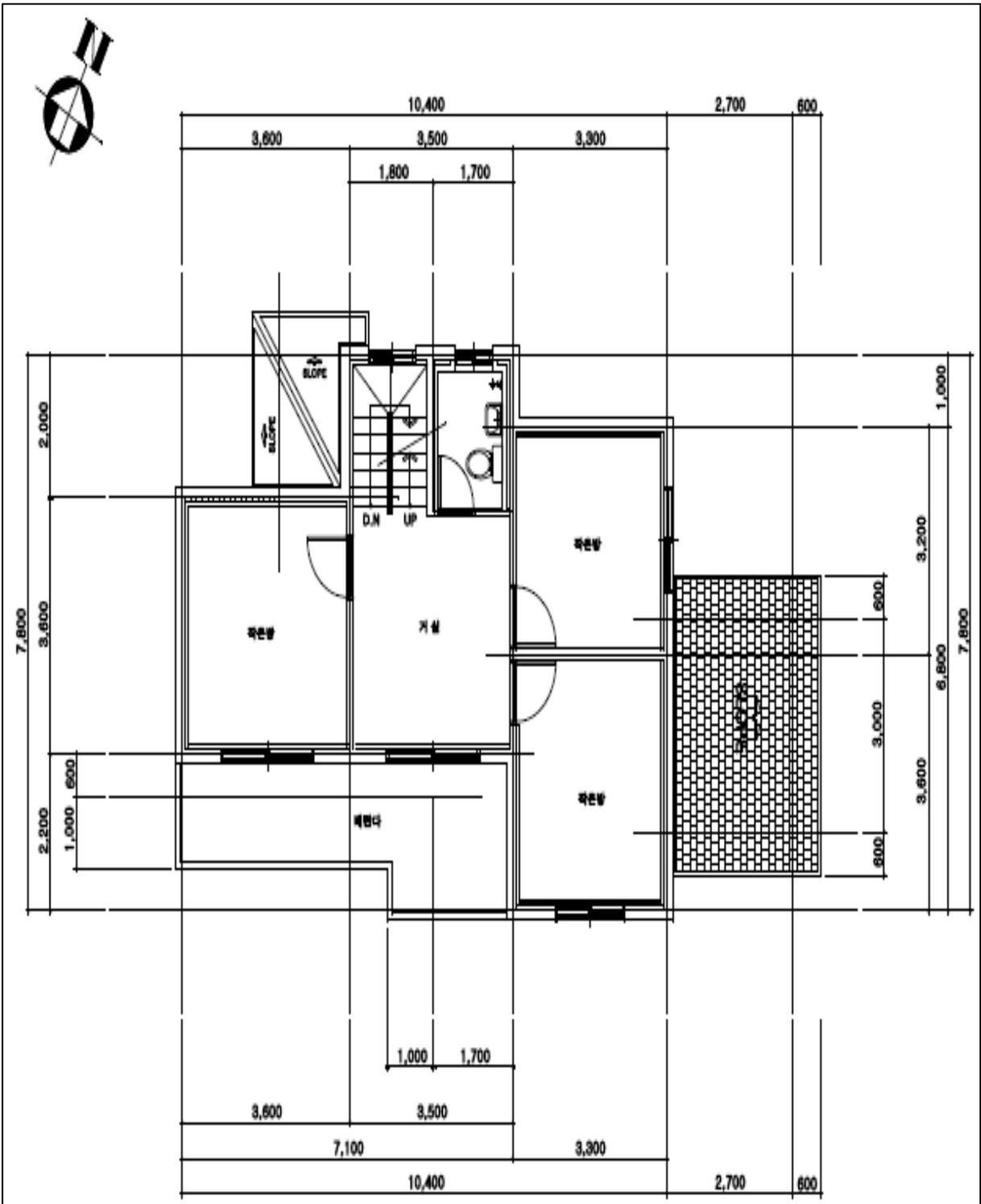
전원 홈스테이를 시작하는 이유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분위기가 낮은 시골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마음껏 뛰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낮에는 공교육을 받고, 하교 후에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해서 세상 교육과 성경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전원 홈스테이의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생들이며, 이를 통해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폐교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서, 마을이 급격히 노령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전원 홈스테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매입한 비전 빌리지 터에 현재 주택을 추가로 한 채를 더 짓고 있다. 이 집에는 학생들을 돌볼 보호자(guardian) 역할을 할 목사 부부가 학생들과 함께 상주하며 학생들의 식사, 등, 하교, 성경 공부, 학습 지도 등을 할 것이다.

<그림 8> 비전 아카데미 전원 홈스테이 학사관 1층 건축 설계 도면



<그림 9> 비전 아카데미 전원 홈스테이 학사관 2층 건축 설계 도면



이렇게 시작한 전원 홈스테이를 발전시켜 비전 학사관을 만들고, 나아가 기독교 대안 학교인 비전 아카데미를 만들 것이다. 비전 아카데미는 초, 중등 과정으로 만들어지며, 단순히 대학교 입시와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닌 전인적인 교육과정과,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양육함으로써 다음세대의 리더로 양육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3) 비전 농장(Vision Farm).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량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며, 안타깝게도 완패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 종자 회사가 우리나라 종자의 약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 농우 바이오가 시장 점유율 19%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¹²⁷ 이것은 차후 우리나라가 식량 주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외국계 종자 회사들이 공급하는 종자들은 파종 후 열매를 수확하여, 그 열매에서 씨앗을 받아 다시 심어도 2세대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순환 농업 불가능)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 또는 모종을 매년 반복해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토마토에 넙치의 유전자를 넣거나 하는 등의 자연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¹²⁸

뿐만 아니라 순환 농업이 가능한 국내 토종 씨앗들은 수확량이 적거나, 병충해에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농부들에게 외면을 받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연구지역을 탐문 조사한 결과 농작물 판매를 위해 토종 씨앗을 심는 농가는 거의 없었고, 일부 농가에서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텃밭에 조금 심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순환 가능한 유전자 조작 없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127) 정장열, “세계의 종자전쟁” 「주간조선」, [온라인 자료], <http://www.chosun.com/magazine/news/200611/200611040164.html>, 2016년 09월 04일 접속. 우리나라 5대 종자회사 중 이미 4개 회사는 외국 기업에 팔렸다. 1997년에 스위스 노바티스는 서울종묘를 인수했으며, 1998년에는 멕시코의 세미니스가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했고, 같은해 일본 사카타는 청원종묘를 인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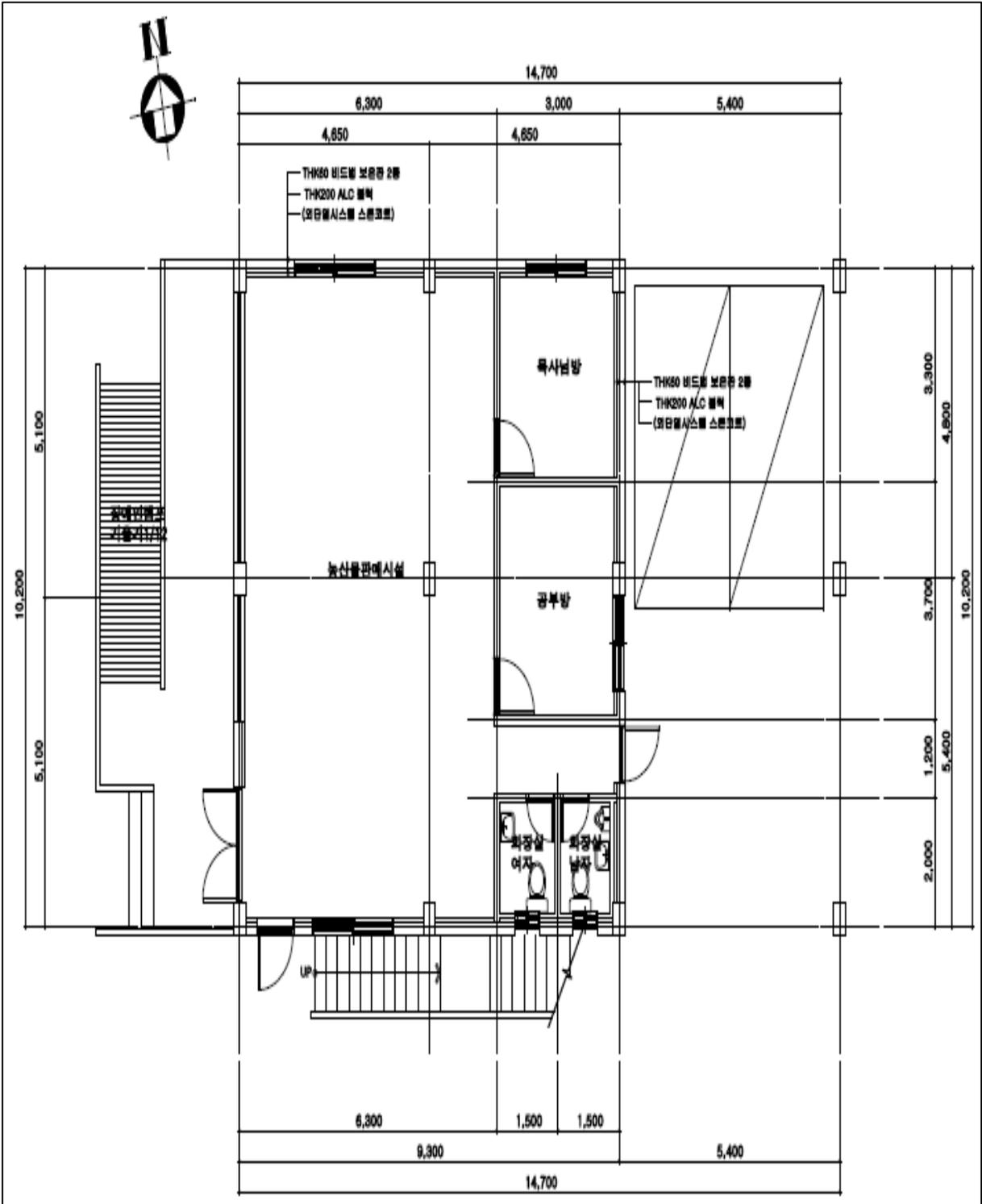
128) 김기홍, “전세계 GMO 후폭풍 걱정” 「농민신문」, 2016년 10월 17일, 3면.

또한 본 논문의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가 문제가 된다. 산지에서는 너무 싸게 수매(경매)되고 농산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직거래는 농부들의 고령화와 지식 및 시간 부족으로 인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가공, 판매를 함께 하는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촌 교회는 주변 지역의 생산물 판매를 위한 조합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 1차 농산물을 판매한다. 그리고 조합원과 함께 2차 가공품(예: 감 판매 -> 감 식초 생산, 판매)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궁극적으로는 전도로 연결 되도록 한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2015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단감, 고구마, 감자, 오디 등을 도시교회와 연계하여 판매했는데, 단감은 약 3톤, 고구마와 감자는 각 약 2.5톤, 오디 약 1톤 등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연구자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재 짓고 있는 비전 빌리지의 교회는 평일에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으로 사용하고, 같은 장소를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짓고 있다.

<그림 10> 비전 교회 건축 설계 도면



(농산물 판매 시설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

<그림 11> 비전 교회 건축 진행 모습



(1층이 주중에는 농산물 판매장,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2층은 사택임)

(4) 비전 빌라(Vision Villa)

비전 빌리지 내의 비전 빌라는 크게 귀농자와 은퇴자를 위한 빌라가 있고,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빌라가 있다. 우선 귀농자와 은퇴자를 위한 빌라의 경우, 비전 빌리지 에서는 땅을 제공(또는 중계)하고 귀농자와 은퇴자는 자신의 투자로 집을 건축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집에 살다가, 귀농자의 경우 일정(계약)기간 또는 소천시까지, 은퇴자의 경우 소천시까지 살다가 비전 빌리지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비전 빌라를 건축한다.

비전 빌라를 건축하고 입주하는 귀농자에게는 비전 농장을 통해 정착을 돕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은퇴한 귀촌자에게는 편안한 노후 전원생활과, 비전 아카데미, 비전 농장 등에서 적당한 노동을 통해 건강과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건축되고 기증된 비전 빌라는 선교사 안식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된다.

현재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은퇴한 후 귀국하게 되면 소천시까지 살 수 있는 안식관이 많지 않다. 이것은 선교 한국의 어두운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증된 비전 빌라를 은퇴한 선교사들의 안식관으로 사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증된 비전 빌라의 기능 중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쉼터로서 사회복지 시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미혼모, 가출 청소년, 가정 폭력 대피소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 더욱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시설은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기증된 비전 빌라는 보통의 전원주택과 비슷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방이 3개 전후가 된다. 이 방들 중에 큰 방(안방)은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사용하고, 다른 방은 미혼모나 가출 청소년의 쉼터로 사용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활을 도와 삶의 비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림 12> 비전 빌라 건축 진행 모습



제 6장

결론

서론에서 밝혔듯이 현재 한국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타 종교들은 대부분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가진 기독교만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이전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을 근거로 실제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 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연구하기 위해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연구하였고,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로의 도래 마을로 이주하여 2년간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를 연구하였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론이란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를 뜻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로 비유될 수 있으며, 교회의 사명은 예배, 전도, 교제, 봉사,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데에 있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 조합 및 판매장 등을 통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흐려놓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들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계속 방치한다면 자정 능력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실현하고, 한국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으로 이주하여 지역을 연구하게 되었고, 현재 비전 교회, 비전 농장, 비전 아카데미, 비전 빌리지 등의 기독교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섬기는 비전 교회는 현재 부산의 영안침례교회, 창원의 명곡교회와 협력교회 관계를 맺고 있다. 협력 및 후원교회를 맺은 교회들은 매월 선교비 지원은 물론이고 비전 교회가 있는 지역의 농산물을 각각의 교회 교인들에게 판매해 주고 있다. 차후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력교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교회 사역 이외에도 비전 빌리지 사역을 다각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 교회는 2015년에 비영리 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차후 연구 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목회적, 사회적 요청을 수용하여 지역에 맞는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비전 농장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협동 조합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주중에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비전 아카데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음세대를 성경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2016년 현재 건축하고 있는 비전 빌라 1호의 2층을 학사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후 기독교 대안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비전 빌라는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2016년 현재 건축하고 있는 비전 빌라 1호의 1층에서 시작하고, 차후 귀농귀촌하는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며,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여 나눔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비전 빌리지의 사역을 연구자 혼자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역들을 모두 하기엔 연구자의 능력이 미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전 빌리지의 사역에 관심을 갖거나, 비전을 공유하는 개인, 교회, 기업, 단체들과 연합하며 함께 사역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실제로 본 논문이 작성되는 동안 비전 빌리지 터전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전 빌리지 비전을 들은 땅 주인이 주변의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팔기도 했고, 의령의 모 건축 설계사는 비전 교회와 빌라의 설계를 무료로 해주었으며, 건축 시공사는 건축 실비만 받고 건축을 진행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산의 모 병원은 비전 빌리지 협력 병원이 되어서 비전 농장 조합원같이 비전 빌리지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병원비 자부담 부분을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인적, 물적 자원, 환경 등)을 주관하시라 결국에는 구원의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성경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연구자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비네 아스고돔은 자신의 책 「BE YOU!」 에서 “꿈은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반면 비전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에 가깝다..... 계획을 잘 짚고 다듬어 행동으로 옮기고, 과감히 결정하고, 위험을 이겨내며 적극적으로 일한다.”¹²⁹ 라고 말했듯이 본 연구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빌리지’의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혼자 꾸면 꿈(dream)이지만 함께 꾸면 비전(vision)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본 논문을 통해 비전 빌리지의 비전을 갖는 목회자,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비전 빌리지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129) 자비네 아스고돔, 송경은 역, 「BE YOU! 성공을 부르는 자기 PR」 (서울: 바움, 2004), 93.

Appendix A 부록 A

설문지

본 설문지는 “지역과 연합하는 기독교 공동체 ‘비전 빌리지’의 제안”이라는 논문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다른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된 설문 내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질문에 답해 주시고,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란에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 ① 9세 이하
- ② 10세 - 19세
- ③ 20세 - 29세
- ④ 30세 - 39세
- ⑤ 40세 - 49세
- ⑥ 50세 - 59세
- ⑦ 60세 - 69세
- ⑧ 70세 - 79세
- ⑨ 80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 ② 남

3. 현재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번호	나이	성별	관계	직업	연간 수입(원)
1					
2					
3					
4					
5					

4.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창원시 북면)에 몇 년간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5년 이하
- ② 6년 - 15년
- ③ 16년 - 25년
- ④ 26년 - 35년
- ⑤ 36년 - 45년
- ⑥ 46년 - 55년
- ⑦ 56년 이상

5. 귀하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 ② 회사원(월급 수령. 정규직, 비 정규직 포함)
- ③ 일용직(농업, 건축 일용직 등)
- ④ 임대업(토지, 건물 임대 등)
- ⑤ 국가 보조금(기초 노령연금, 농업 직불금 등)

기타 : _____

6. 귀하의 연간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 ① 1,000만 원 이하
- ② 1,001만 원 - 1,500만 원
- ③ 1,501만 원 - 2,000만 원
- ④ 2,001만 원 - 2,500만 원
- ⑤ 2,501만 원 - 3,000만 원
- ⑥ 3,000만 원 이상

7. 귀하의 주된 수입이 '농업'일 경우 수입이 높은 순서대로 작물명과 연간 수입(최근 5년간 평균치)을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번호	작물명	연간 수입(원)
1		
2		
3		

8. 귀하의 주된 수입이 '농업'일 경우 농업과 관련되어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재배. 이유 :
- ② 판매. 이유 :
- ③ 보관. 이유 :
- ④ 가공. 이유 :
- ⑤ 기타 : _____. 이유 :

9. 귀하의 주된 수입이 농업일 경우 농업에 몇세까지 종사하기를 원하십니까?

_____세

10.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1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 _____

1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생긴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이유 :

② 아니오. 이유 :

③ 조건부 예. 이유 :

④ 조건부 아니오. 이유 :

⑤ 보류. 이유 :

13.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 ②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14. 기독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 ②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1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교회가 생긴다면 교회에 다닐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이유 :
- ② 아니오. 이유 :
- ③ 조건부 예. 이유 :
- ④ 조건부 아니오. 이유 :
- ⑤ 보류. 이유 :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김덕수. 「건강한 목회를 통해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8.
- 곽영신. 「거룩한 코미디」. 서울: 도서출판 오월의 봄, 2015.
- 목회와 신학 편집부. 「통계로 본 한국교회」.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박병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박영돈.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14.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박철수. 「하나님 나라 - 기독교란 무엇인가?」. 대전: 대장간, 2015.
- 신성남. 「어쩔까나 한국교회」.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4.
- 손인용. “교회 사회복지 참여의 신학적 근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이상근. 「마태복음 주석」. 서울: 예장 총회 교육부, 1970.
- 이승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서울: SFC 출판부, 2011.
-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전광현 외. 「사회봉사의 이해」. 경기: 양서원, 2010.
- 정지선, 김완용.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체계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1.
-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14 마태복음 마가복음」.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0.
-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15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울: 성서아카데미, 2000.

- 창원시 기획 담당관. 「창원시 2016 년 시정백서」. 창원: 부평디엔피, 2016.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URD, 2013.
- 한국 신약학회. 「신약성서의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기독교서회, 2013.
- 게리 윌스, 김창락 역.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서울: 돈을새김, 2007.
- _____, 권혁 역.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돈을새김, 2007.
- 닐 콜, 필 헬퍼, 안정임 역. 「교회 트랜스퓨전」. 서울: 스텝스톤, 2014.
- 도날드 헤그너, 채천석 역. 「Word Biblical Commentary 마태복음 33 하」.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 레이몬드 브라운, 최홍진 역. 「요한 공동체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마크 부케넨, 안세광 역. 「당신의 교회, 너무 안전하다」. 서울: 요단출판사, 2014.
- 부루스 윌킨슨, 케네스 보아, 정인홍, 광철호 역. 「한눈에 보는 성경」.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 에디 깁스, 임신희 역. 「넥스트 처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볼프강 슈테게만. 손성현, 김판임 역.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 자비네 아스고돔, 송경은 역. 「BE YOU! 성공을 부르는 자기 PR」. 서울: 바움, 2004.
- 찰스 스윈돌, 유정희 역. 「교회의 각성」. 서울: 두란노서원, 2012.
- 케네스 갱글, 정현 역. 「Maim Idea 로 푸는 요한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 케네스 보아, 윌리엄 크루이드니어, 김현희 역. 「Main Idea 로 푸는 로마서」.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 케빈 길레스, 홍성희 역. 「신약성경의 교회론」.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7.

트랜트 C 버틀러, 장미숙 역. 「Main Idea 로 푸는 누가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폴 스티븐스, 김성오 역.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폴 엔스, 최치남 역. 「신학 핸드북」.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한스킹,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4.

2. 정기 간행물

「농민신문」. 2016년 10월 17일.

성종현. “섬김의 예수, 섬김의 교회.” 「교회와 신학」, 23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3.

_____. “예수와 디아코니아.” 「장신논단」, 제 12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이승구. “한국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목회와 신학」, 2016년 10월, 서울: 두란노 2016.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2015.

창원시 기획 담당관. 「창원시 2016년 시정백서」. 창원: 부평디엔피. 2016.

한스킹,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4.

3. 기타 자료

「국어사전」. 서울: 학력개발사, 1985 판.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국토 현황(행정구역별)” [온라인 자료]. <http://www.index.go.kr/>. 2016년 09월 01일 접속.

국가 통계 포털 홈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 [온라인 자료]. <http://kosis.kr/>. 2016년 05월 01일 접속.

_____. “2005년 성/연령/종교별 인구-시군구” [온라인 자료]. <http://kosis.kr/>. 2016년 09월 02일 접속

_____. “2005년 성/연령/종교별 인구-시군구-행정구역별” [온라인 자료]. <http://kosis.kr/>. 2016년 09월 03일 접속.

- _____. “2014 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 2016 년 09 월 05 일 접속.
- _____. “주제별 통계”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 2016 년 09 월 01 일 접속.
- 국민 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홈페이지. “2016 년 근로자 연평균 소득” [온라인 자료]. www.nhis.or.kr. 2016 년 09 월 04 일 접속.
- 네이버 지도. “창원시 의창구” [온라인 자료]. <http://map.naver.com/>. 2016 년 08 월 06 일 접속.
- 농림 축산 식품부 홈페이지. “소득보존 직불금” [온라인 자료]. www.mafra.go.kr/. 2016 년 09 월 02 일 접속.
- 대한민국 행정 자치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온라인 자료]. <http://rcps.egov.go.kr/>. 2016 년 09 월 01 일 접속.
-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대한성서공회 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bskorea.or.kr>. 2016 년 05 월 01 일 접속.
- 목회 사회학 연구소. “한국 개신교 신학대학의 현황과 실태” [온라인자료]. <http://www.psik.co.kr/연구자료실>. 2016 년 09 월 03 일 접속.
- 북면사무소 홈페이지. “면사무소안내 기본 현황”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town/bookmyeon/>. 2016 년 08 월 21 일 접속.
- _____. “우리면 이야기 / 지역 특산물”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town/bookmyeon>. 2016 년 08 월 21 일 접속.
- 정장열. “세계의 종자전쟁” 「주간조선」. [온라인 자료]. <http://www.chosun.com/magazine/news/>. 2016 년 09 월 04 일 접속.
- 창원시 의창구청 홈페이지. “지명유래” [온라인 자료]. http://uichang.changwon.go.kr/sub01/sub01_02.jsp. 2016 년 08 월 21 일 접속.
- 창원시 통계정보 시스템. “북면 행정지도” [온라인 자료]. <http://stat.changwon.go.kr/>. 2016 년 08 월 21 일 접속.
- _____. “주민등록인구통계” [온라인 자료]. stat.changwon.go.kr. 2016 년 08 월 21 일 접속.
-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의 상징”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3_01.jsp. 2016 년 09 월 01 일 접속.
- _____. “창원시의 캐릭터”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3_01_02.jsp. 2016 년 09 월 01 일 접속.
- _____. “창원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changwon.go.kr/05Changwon/01_01.jsp. 2016 년 09 월 01 일 접속.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홈페이지. “임원조직도, 한목협 소개” [온라인자료].
<http://www.kpastor.org>. 2016년 05월 01일 접속.

한국갤럽. “회사소개” [온라인 자료]. <http://www.gallup.co.kr/>. 2016년 05월 01일 접속.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May 4, 2016

Hang-Cheul Cho
IRB Exemption 2509.050416: Vision Village: A Christian Community That Unites Local Residents

Dear Hang-Cheul,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 (2) Research involving the use of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unless:
- (i)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in such a manner that human subjects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and
 - (ii) any disclosure of the human subjects' responses outside the research could reasonably place the subjects at risk of criminal or civil liability or be damaging to the subjects' financial standing, employability, or reput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